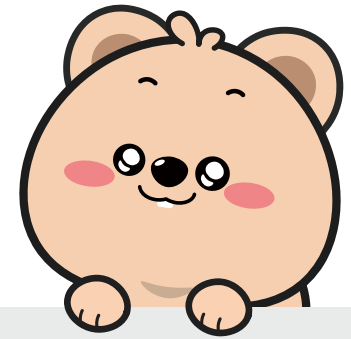




2022~2023년 광주아이키움

육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2022년

최우수상

김지수 | 열여섯의 서툰 육아일기 6

우수상

황예림 | 내 고난을 잊기에, 충분한 내 보물들 10

박진형 | 우아질~ 우아질~ 16

장려상

오종진 |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육아 체험 수기 22

남이슬 | 너와의 110일 기록 30

박기운 |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40

박광수 | 육아하는 아빠, 남자 육아 그리고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46

이철웅 | 감격, 이제 세 번째 눈물을 흘릴 차례 56

김희정 | 매력덩어리 정우정 ♡ 62

윤양근 | 육아가 천직인 아빠의 육아 휴직기 70

2023년

최우수상

김정호 | 외국인 엄마를 감동시킨 나의 육아 멘토 광주아이키움 고마워! 78

우수상

조동휘 | 3년째 육아휴직 중인 다둥이 아빠 82

남이슬 | 육아공동체와 육아체인지 88

장려상

임재철 | 아빠 힘내세요! 94

이미지 | 육아가 체질은 아니지만 - 부부 육아휴직, 시간제 보육 이용 98

김형우 | 백수 아빠와 간호사 엄마 104

김승의 | 임신 중 허리디스크 터짐...아빠의 육아휴직 108

김진희 | 햇살로 자란 우리 114

임해정 | 우리 가정보다 양육자 많은 집 나와보라 그래! 120

최지원 |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126



광주아이키움

육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2022년**

• 김지수

## 열여섯의 서툰 육아일기

평소와 똑같이 평범하게 수업을 듣는 도중 아빠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 엄마가 길에서 쓰러졌다고 처음에는 엄마가 '당뇨'라는 질병이 있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혈당으로 쓰러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쓰러지면서 찢어진 머리를 수술하는 엄마를 두고 태어난 지 일 년 반 살짜 남은 막둥이를 데리고 집에서 걱정 없이 쉬고 있었다.

하지만 네 시간 정도 뒤에 아빠에게 연락이 왔었다. 엄마가 악성 뇌종양이라는 것, 당뇨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닌 암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눈물만 흘렸다. 그것도 잠시였다. 나에게게는 아직 태어난 지 일 년 반 정도 지난 동생이 있었고 ADHD라고 의심되는 1학년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정도 학교를 빼고 막둥이를 받아줄 유치원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1학



년 동생이 학교 끝나고 있을 센터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동생들의 유치원과 센터를 구한 뒤 나의 육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막둥이, 1학년, 6학년이 먹을 밥을 만들고 차려야 했고 학교에 입고 갈 옷, 물, 소지품을 챙기고 나서야 내 등교 준비를 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서는 원래 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며 방과후 활동을 보냈었는데 바로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 음식 등 엄마가 했던 모든 일을 다 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내일 유치원, 학교 보낼 준비를 다 해놓고 아기들을 재우려고 하면 밤 9시였다. 그 시간이 돼야야 나는 밥을 먹고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러다 보니 나의 생체리듬은 무너졌고, 나의 꿈도 사라졌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많디많은 동생들이 원망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들에게 고마웠다.

나도 아직 미성숙한 중3일 뿐이고 육아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도 없으며 엄

마보다 한참 뒤떨어질 텐데 그런 나에게 불평불만 없이 고맙다고 해주는 거, 와서 안아주고 오늘 뭐 했다고 이야기해주며 학교에서 만든 걸 나에게 선물 해주는 동생들이 정말 고맙고 기특했다.

대부분 주위에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부모님이 원망되겠다’ 등의 말 씬들을 해왔지만, 부모님이 원망 된 적도 없고 하느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저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점이 행복했고 나라도 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로 가까이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거는 언제나 즐겁고 평화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막둥이가 잠들기 전부터 잠에 깨고서까지 계속 울었다. 안아줘도 울고, 재밌는 걸 보여줘도 울고 나는 아직 육아 지식이 없어서 네이버에 검색 해 보고 이것저것 모든 걸 해보았지만, 막둥이의 울음은 잠깐 멎을 뿐 일 분도 안 돼서 다시 울었다.

정말 당황했고 난감하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막둥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었기에 바람이라도 쐬주려고 밖에 데리고 나갔더니 그제야 눈물을 그쳤다.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아기 목이 쉬었을까봐 걱정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어제 막둥이에게 뭘 했나 생각해 봤더니 어제 막둥이가 유리컵을 깨뜨려서 다치지 않았을까 무서운 마음에 막둥이에게 소리 지른 기억이 떠올랐었다. 그래서 막둥이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하루는 막둥이 옆에 꼭 붙어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걸 다 해주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내 시간이 없이 바쁘기만 하고 힘들지만, 막둥이와 동생

들의 미소를 보면 그날 일이 다 행복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서 엄마의 일을 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나 혼자고 외동이었다면 버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난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 중3이다.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되며 내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난 행복하다. 나의 삶은 아직 많이 남았고, 내 삶보다 동생들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귀여운 저희 막둥이 보고 가세요!



• 황예림

## 내 고난을 잊기에, 충분한 내 보물들

나에게는 4살, 10개월 두 딸이 있다. 둘째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나의 힘들었던 결혼생활, 임신기간, 육아 기간을 써보려 한다.

2015년 8월, 24살 어린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이에 결혼했다. 1살 많은 25살 남편은 하와이로 유학 갈 준비한다고 집에서 공부하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도 행복할 거라고 암시를 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 가게 되었다. 돈 벌러 호주까지 간 남편은 고작 하루 4시간 일하고 자기 운동하고 놀기 바빴다. 그때부터 조금씩 신뢰가 안 느껴지고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다. 좋은 일을 찾아 옮기게 되었고 나도 같은 곳에서 하루 8~10시간 식당 일을 하게 되었다.



2017년 5월, 타국인 호주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병원비가 비쌌기에 임신테스트기로만 확인을 하고 같이 기뻐했다. 나는 임신을 했지만 일도 적응 잘했고 그만두기 아까워서 계속 일을 했다. 임신 9주 만에 갑색혈을 일주일 간 보았지만, 처음이라 잘 몰랐고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바로 안 가고 버티다가 호주 친구 도움으로 일요일에 응급실을 갔지만 시골이어서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기다려도 의사를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아프고 결국 집 화장실 변기에서 하혈을 했다. 또 응급실을 갔지만 3시간을 기다려도 의사를 못 만나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만 받아서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의사를 만나 초음파를 봤지만 이미 유산되어버린 아기. 초음파조차 보지 못하고 첫아이를 떠나보냈다. 비자 1년을 채우기 전에 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9개월 만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몸 상태를 보았는데 다행히 깨끗하게 비워졌다.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조그맣지만 집을 전세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하여 임신 계획을 한 지 한 달 만에 두 번째 임신이 되었다. 이 아이는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임신 초기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임신 중기가 되자마자 남편이 퇴근 후 농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져 걸을 수 없는 환자가 되어버렸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병수발을 하게 되었다. 임신 내내 왕비 대접은커녕 남편 간호를 하였지만 그래도 출산은 잘하였다.

출산 전,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이 되어 가격이 올라 샀을 때보다 비싸게 집을 팔아 반을 내 몫으로 주셨지만, 친정 아빠가 하



시는 곳에 전부 투자를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에 친정 아빠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 돈을 실수로 다 날렸다는 것이었다.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 말을 어떻게 꺼낼지 속앓이하셨을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났다. 아빠께서 비록 돈은 날렸지만, 서아는 축복이라고 하셨다.

그 후로 1년 동안 아빠는 생활비를 대주셨고 남편은 공무원 준비로 공부를 했는데 남편은 공부를 그리 열심히 안 하는 듯했고 불면증도 있었다. 옆에서 난 육아도 하라, 남편 비위도 맞추고 응원과 지지도 해줘야 했다. 몸 쓰는 일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대주시는 친정 아빠께 너무 죄송했다. 그래도 힘든 내색 전혀 안하시고 우리 아기를 너무 예뻐해 주셨다. 우리 첫째 돌잔치 때에도 일하러 가시느라 참석 못하시면서 계산하라며 신용카드를 주셨다. 2020년 초까지 생활비를 받다가 결국 남편은 공무원 준비를 관두고 아르바이트

를 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정신적 증상은 더 심해지며 나한테 막말을 하고 화도 자주 내고 사이는 점점 나빠졌다. 첫째를 주인집이나 친정 아빠에게 맡겨가며 부부 상담을 다녀보았지만, 남편은 상담사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고 조언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둘째가 갑자기 생겨버렸고, 남편은 임신한 나에게 책임감 없이 임신해버리라며 내 잘못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 와중에 첫째가 요로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임신 초기인 몸으로 아이의 병간호를 했다. 그런 아내에게 집이 청소가 안 되어있다고 잔소리를 했고 아주버님에게 그걸 일렀다며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엄청 욕을 많이 했다. 아기가 퇴원하고 그다음 날 남편은 나보고 첫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다. 일주일만 지나자 자신은 화가 풀렸다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내가 안가겠다고 하자 이혼하자고 했다.

사실 이혼 얘기를 꺼낸 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내가 붙잡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수락했다. 그렇게 둘째 임신한 몸으로 이혼 과정을 밟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나에게 욕을 자주 했다. 나는 첫째와 배 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임신 내내 친정에서 주로 지냈다.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나에게 비난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곧 얼마나 힘들면 내가 그런 결정을 하셨나 싶어 받아들여셨다. 3개월의 조정 기간이 지나고 2021년 12월 21일 이혼 확정이 났다. 2022년 1월 14일 친정엄마 휴무에 맞춰서 유도분만으로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도 가지 않고 친정에서 6개월간 몸조리를 하였다. 둘

째 임신기간 내내 친정살이를 하고, 출산도 아빠가 아닌 외할머니랑 하게 되고 태어나 6개월간 외할머니랑 지내다 보니 우리 둘째는 외할머니의 최애 아기가 되었다. 친정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둘째에게는 눈에서 하트가 절로 나오고 보기만 해도 미소를 지으시고 애교까지 부리신다.

이렇게 난 아이 둘의 임신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고난보다 더 큰 선물로 나에게 왔다. 내 힘든 시간을 함께해준 나의 친정 아빠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딸들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앞으로 혼자 애 둘을 키우는 것에 걱정이 많긴 하지만 잘 해내 보리라 스스로 응원해본다. 사랑해 내 아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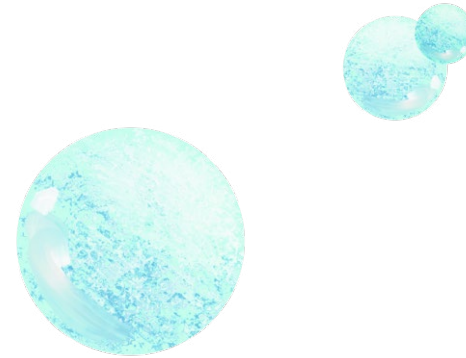


● 박진형

## 우아질~ 우아질~

“우아질~ 우아질~” 꼭 한 녀석이 새벽에 깨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찾는다. 행여나 아내가 먼저 일어나 이 녀석을 안을 때는 고개를 도리도리 좌우로 흔들며 “아빠~아빠~”라고 어둠 속에서 나를 찾는다. 그러고서는 “우아질~ 우아질~”를 외친다. 잠들 때는 엄마 옆에서 자기를 원하면서 새벽 단잠을 깨우는 것은 왜 나인지 크면 물어볼 참이다.

“우유 줘~”라는 의사표시를 우리 쌍둥이(둘 다 남아)들은 “우아 질~”로 표현한다. 꼭 2번 연달아 말이다. 어떤 계기로 “우유”를 “우아”라고 말하는지 알 길은 없다. 아이들을 자주 돌봐주시는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신다. 우리는 ‘우’는 발음이 쉽고 ‘유’는 어려우니 이 나이(28개월)에 가장 발음하기 쉬운 ‘아’를 ‘유’ 대신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다. 우리가 우유를 들고 “우유”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더 큰 소리로 “우아”라고 우리를 가르친다.



말이 통하면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또 있다. 어쩌다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를 줘도 한 모금 마시다 말고 그냥 흰 우유를 찾는다는 것이다. 분명 달콤한 것을 더 찾을 것 같은데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늦은 나이(40세)에 결혼하고 2020년 한참 무더운 8월 초 두 아이가 태어났다. 시험관을 통해서 힘들게 얻은 내 생명이다. 시험관 임신은 가정에서 자가 주사를 배에 몇 번 놓는다. 시간도 맞추어야 하니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도 많다. 그 시기 하필 나는 출장으로 10일간 집에 없었다. 이는 평생 아내의 잔소리 끝에 붙는 레파토리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음을 잘 안다.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수밖에...

사실 우리 부부는 아들, 딸을 원했다. 하지만 뭐 세상만사 맘대로 되는 것이 있을까? 동성(同性)의 자녀를 두는 것도 여러 장점이 많다고 정신승리로 극복한 지 이미 오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보여줄 때도 같은 것을 고르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많다. 물론 장난감은 똑같은 것으로 2개 사줘야 안 싸운다. 아내의 배가 점점 커지던 어느 날 의사는 둘째가 첫째 때문에 압박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 지금 당장 분만을 해야 한다고 했다. 4분 차이인 형제는 둘째가 왜소하다. 그래서인가? 둘째는 첫째보다 자주 아팠다. 입원 횟수만 해도 우리가 가는 병원에서 감사패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 퇴근길 입원실에 들러 젖병 가지고 집에 가 소독하고 기저귀, 분유 등 여러 짐을 들고 새벽에 다시 출근길 입원실로 가고 집에 있을 때는 다른 녀석을 재우고 밥 먹이고 장인, 장모님 등 온 식구가 동원된다. 아내보다 연차 내기가 수월한 내가 함께 입원

실에 많이 있었다. 며칠씩 병원에 있다 보면 우울하기도 한데 그때는 명상도 하고 미래의 긍정적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다. 그렇게 강제로 둘만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 정이 쌓였을까? 새벽에 “우아질~”로 나를 찾는 녀석이 둘째다.

요즘은 아빠도 육아에 대해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이 아닌 주체로 인식된다. 많은 아빠가 육아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지만 나는 아이 재우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0등 안에 들 자신이 있다. 지면상 한 가지 방법을 말하자면, 자녀가 안자고 떼를 쓸 때는 원하는 것에 관해 이제 잘 시간이어서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설득이 안 된다. 이때는 관심의 대상을 빨리 돌려 계속 말을 걸고 질문을 해서 내가 왜 지금 울면서 떼쓰고 있는지를 잊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자야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눈피 않고 식탁 위를 올라가려 하거나 이불을 들고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할 때는 얼른 안아서 거실 창문으로 간다.

반짝 별이 어딴어? -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 (밤하늘을 보며) 저쪽~ 달은 어디 있어? - (밤하늘을 보며) 저쪽~  
부엉이는 어디서 와? - (밤하늘을 보며) 저쪽~  
맞아~ 참 잘했어요. 저기 빠방(자동차) 지나가네. 빠빠이 해줘~~ (손 흔들)  
하마 어딴어? -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  
코끼리 어딴어? -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  
없어. 지금 다 자고 있어. 잔다고 다들 집에 갔어. 일단 우유 한 모금 해봐.  
입에다 빨대를 대 주면 몇 모금 마시다가 그대로 내 어깨에 기댄다. 그러면 항상 들려주는 솜사탕 동요를 조그마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왔다 갔다 걸으

면 잠이 들기 시작한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잠든 것 같다고 바로 눕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상태에서 두 팔로 애를 옆으로 뉘어 바닥과 수평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1~2분간 눈감은 얼굴을 보며 수면의 깊이를 파악한 뒤 아내 옆에 눕히면 거의 성공한다. 그리고 나도 옆에 눕고 실눈으로 바라본다. 혹시나 애가 눈을 살포시 뜰 때 엄마, 아빠도 옆에서 자는 것을 보면 그대로 다시 잠드는 게 나의 경험이다. 조심조심^^

나는 대한민국 소방관이다. 소방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받을 때 나는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calling’이라고 썼다. ‘calling’. 16세기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세속적인 직업도 영적인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오늘날에는 개인이 자기 일과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명’이라 해석해도 무방하다. 나는 두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 아직도 이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 언론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 ‘영웅’ 등으로 묘사되거나 소방관도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들, 사위로 출발한다. 투철한 직업정신과 내 2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애정은 어찌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아내와 장모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내가 근무하는 소방서로 왔다. 장난감으로만 보던 소방차와 구급차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필 그 시간에 119 신고로 출동 나가는 구급차를 보며 아쉬워하는 녀석들. 소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만지며 좋아서 입 다물지 못하는 녀석들. 소방서 차고지를 이리저리 뛰며 좋아하는 녀석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보았다.

“더 뛰어봐! 더 뛰어도,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뒤에 있잖아^^”



• 오종진

##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육아 체험 수기

♫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외로운 어느 날 꺼내 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가족사진’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를 들노라면, 얼마 전 하늘나라 가신 사랑  
하는 우리 아버지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이 육아 체험 수기는 사랑하는 가족  
을 품고 가신 아버지께 쓰는 편지입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계시죠^^ 저도 사랑하는 아버지 손녀 민서  
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하지 못했던 얘기와 아버지  
가 천국 가신 후 쭉쭉 커가고 있는 민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아버지! 민서가 태어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었죠.



왜냐면 너무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스토리인지라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실까 봐 우리 가족들에겐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 편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공포로 떨게 하던 그때, 우리 민서는 엄마 뱃속에 있었지요. 사실 저희 부부는 일곱 번째 유산을 하고, 여덟 번째 임신 중이었어요. 말 그대로 칠전팔기였죠. 민서 엄마는 자가면역질환이 있어서 임신을 힘겹게 힘겹게 유지해가고 있었어요. 민서 엄마는 한 달에 한번 12시간씩 병원 응급실을 찾아 면역주사를 맞아야 했고, 하루에 한 번씩 불러오는 배에 주사를 놓으며 멍이 드는 배를 보면서도, 뱃속에 우리 아기만 잘 있어 달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보냈지요. 그래도 한 번씩 아버지 뵈러 집에 들르면 아무 걱정 없는 듯 밝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썼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꽤 많은 주 수가 되었지요. 29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매년 8주를 넘기지 못한 저희 부부에겐 너무 놀랍고, 또 태동도 느끼지는 행복한 주 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양수가 없어 아기를 꺼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 그렇게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꺼내니, 체중이 930g이었요. 1kg도 안 되는 작디작은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채로 수술실에서 나와 신생아중환자실로 가기 위해 제 앞을 스쳐 지나갈 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제발 이 아기를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 짧은 민서와의 첫 만남의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거 같아요.

하루에 한 번 15분만 허락된 민서와의 만남을 위해 저희 부부가 손 꼭 붙잡

고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으로 오간 게 62일이네요. 어느 날은 면회 가는 도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간호사 선생님 왈 ‘어디까지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휴~ 우리 민서는 이쁜둥이들이 겪을 수 있는 질환들 하나도 겪지 않고 잘 먹고 잘 이겨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건강하게 퇴원했지요.

아 맞다. 제가 병원에서 별명이 기저귀 아빠였어요. 왜냐구요? 면회 시 기저귀 가는 시간이 있는데 구수한 보리차 냄새나는 우리 민서 기저귀를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니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시며 주시더라고요. 그땐 뭐든 소중한 거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퇴원 후, 집에서 첫 목욕을 시킬 땐 어찌나 무섭던지요. 2.6kg으로 퇴원한 아지는 작디작은 우리 민서 행여 다칠까 조심조심하며 목욕시키던 그날, 민서 엄마가 목욕시키고 전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옆에서 ‘이렇게 해야지, 옳지 바로 그거야’ 이렇게 혼수만 뒀어요. 겁쟁이 아빠였죠.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이었는데도 출장이 잦은 업무라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행여나 못된 바이러스들이 옷에 묻어 있을까 봐 현관에서 바로 옷을 다 벗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 깨끗이 샤워하고 나서야 민서를 안아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난스러운 아빠였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회사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주말부부를 하던 중 아이와 함께 할 다시 오지 않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겠다고 생각해 승진도, 명예도 다 내려놓은 채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지요. 아버지께 휴직했다고 말씀드리자 반응이 시큰둥하셨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하느냐

는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도 다른 말씀 없으시고 잘했다고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민서 엄마가 복직하기 전 잠깐 휴직기 간이 겹쳤던 시간에 여행을 많이 다녀왔어요. 민서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민서의 시냅스 신경세포가 맘껏 무한 폭발하라고 기대하면서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보려다 이걸 거의 이사 수준인 거 같아 그걸 포기하고 일주일 살기를 하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아기를 품에 안고 저희 부부가 직장 때문에 3년간 살면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던 제주에 다시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제주에 3년간 있으면서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 임신초기에도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인 민서를 품에 안고 제주에 도착하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민서 엄마가 드디어 복직하고 저 홀로 육아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집안일과 아기 돌봄... 육아는 퇴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다 대단해 보이고, 또 저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을 안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 육아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왜 그리 피곤하던지요. 너무 피곤해서 민서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졸았을 정도니깐요. 근데 사실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가 더 많았어요. 처음 뒤집기에 성공하고, 처음 아빠 엄마를 말하고, 처음 걷기 시작하고, 처음 미끄럼틀과 그네를 혼자 타기 시작하고...

민서에겐 모든 게 처음인 그 일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한 기분! 짜릿한 기분! 아버지도 저를 키우시면서 그러셨겠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육아수당은 숨만 쉬어도 공과금으로 다 나갔지만, 내 마음속 통장에 찍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나날이 쌓여 육아휴직 기간 오히려 부자가 되었어요.

제가 육아휴직 복직을 앞둔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응급실행이 아버지와 마지막일 줄 꿈에라도 예상했다면 더 찾아뵙고 더 말벗도 많이 해드리는 살가운 아들이 되었을텐데, 죽음이라는 예정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일 앞에 이제 와 후회만 가득이네요.

코로나19 상황에 응급실에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들어갔던 게 그래도 다른 가족들보다 아버지를 더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사랑한다 말도 제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께 해드렸으니까요.

제 복직일이 아버지 기일과 딱 들어맞던 걸 인지하면서 아버지가 투병 중 이시면 회사 일 하면서 아버지 챙겨야 하는 아들 고생시킬까 봐 그렇게 시간을 맞추셨나요. 응급실에서 저에게 하셨던 ‘우리 아들 고생시켜 어찌냐’ 이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네요.

아버지! 천국 가신 후 4개월 동안 민서가 어땠는지 들려드릴게요

민서는요. 이제 못 하는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딸기 맛이 맛있는데 왜 못 먹게 하지, 부모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등등...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내가 할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외치며 모든 걸 혼자 하려 합니다. 신발 신는 것, 세수하는 것, 옷 입는 것. 그 덕

분에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는 게 전쟁이네요. 그래도 킬킬대며 환하게 웃어 주는 민서의 미소에 이 모든 게 그저 푸념이 되고, 행복한 날이네요. 얼마 전에는 봉어빵이 먹고 싶다 해서 민서랑 같이 가서 샀더니 그 자리에서 2개를 다 먹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고 있는 민서예요.

민서에게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라고 물어보면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물으면 “네!”하고 크게 대답해요. 할아버지에게 전화하자고 해서 장난감 전화기를 들고 천국에 전화해서 아버지랑 통화하는 연기를 하면, 제 완벽한 연기 덕분인지 가만히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어 주네요.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 가족, 아버지의 이쁜 손녀 민서 지켜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실 아버지 모습을 상상해 보아요.

아버지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다 알 수 있었던 그 사랑, 저도 잘 간직하면서 그 사랑 민서에게 듬뿍 주는 아빠가 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사진에는 더 이상 아버지 모습은 안 보이시겠지만, 언젠가 찍을 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닮아있는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 저 잘 살았죠?’라고 자신 있게 아버지께 말하는 그날을 기대해주세요^^

〈마치며〉

주변에서 복직 후 많이들 묻는다.

“잘 쉬었다 왔어?”

“네가 해봐라! 육아휴직이 쉬었다 오는 건지.”

답은 ‘너무 힘들다’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맛집처럼 해본 사람만이 아는 숨겨진 보물 같은 행복의 시간 육아휴직 한번 해보실래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육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라고들 하죠. 아빠, 엄마가 전부인 우리 아이에게 아빠라는 넓고 듬직한 우주를 맘껏 누리도록 내 시간을 아이에게 올인해보는 게 얼마나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지. 그 우주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겠다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우주 재정비를 통해 우리 아이를 더 잘 양육할 밑거름이 되어주었던 아빠 육아휴직 기간! 함께 누리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 남이슬

# 너와의 110일 기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했다.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둘째를 낳고 보면 첫째와 다르게 또 다른 느낌이 들고 또 다르게 예쁘다고. 하지만 난 이 말을 무시했다. 왜냐.

첫째, 출산의 과정이 참 송고한 일이지만 수술한 나에게는 공포였던 기억이 날 사로잡았다. 이걸 제왕절개 반신 마취하고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로 수술한 엄마라면 알 것이다.

둘째, 신생아를 키우면서 잠 못 이루는 생활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이걸 내가 또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육아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울함이 몰려온다. 이젠 그 시기를 지나 첫째를 어린이집 맡기고 나도 시간을 가질 만하데 다시 육아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넷째, 수면 교육/이유식/배변 훈련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할 것인가.

다섯째, 기타 육아를 하면서 겪게 되는 매운맛 육아.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2배의 육아를 강행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무조건 “NO”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아를 품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그 순간(태동), 태아의 향기 등이 항수병과 같이 느껴지던 때가 찾아왔다.

“만약에 한 명 더 생긴다면 낳고 싶다”

그렇게 2년 11월 겨울, 리치가 엄마에게 왔다.

### 널 만나는 과정\_엄마만의 누릴 수 있는 특권

아가야! 탯줄이 무엇인지 아니? 엄마와 우리 아기를 연결하는 수단이 탯줄 이란다. 탯줄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우리 아가가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야. 우리 아기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 엄마 뱃속에서 쑥쑥 성장했지.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은 참 경이롭고 신비스러워.

뱃속에서 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움직임(태동)이 느껴진다는 것. 이걸 엄마가 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지. 엄마만 누릴 수 있는 특권. 특권 누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 널 만나는 과정\_우리의 만남이 다가온다

아가야! 엄마는 형을 수술해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가도 수술해야 했어. 원래 예정일은 22년 7월 18일이었지만 분만 진통을 느낄 수 있기에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언제가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정했어. 널 7월 8일에 만나기로!



## 널 만나는 과정\_D-DAY

아가야! 드디어 우리 아가를 마주하게 되는 날이란다. 근데 엄마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왜일까? 설레서 그랬을까? 처음에는 설레서 잠을 설쳤는데 새벽 1시부터 배 뭉침과 이슬 비침 등으로 인해 배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아기 잘 있는지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엄마가 되는 과정은 이처럼 기쁨도 있지만 고통이 많이 따른단다.

엄마는 아침까지 밤새고 산부인과로 출발했어. 도착해서 엄마는 또다시 고통을 참아야 했지. 팔에 굵은 수액 바늘을 여러 번 찌르고 제모를 하고 진통을 느끼고... 드디어 엄마는 12시가 되어서야 수술대에 올랐어. 그 시간 밖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었지. 빗소리를 상상하며 엄마는 마취가 시작되었고 스크림 잠이 들었지. 우리 아가는 엄마가 잠든 사이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단다.

\*엄마가 형을 낳을 때 반신 마취를 했는데,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수술에 대한 느낌이 상상되니깐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서 마취 풀릴 때 경기를 하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가 낳을 때 수면 마취해서 엄마가 잠든 사이 나오게 된 거야~ 엄마가 먼저 봐야 하는데 바로 보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아빠한테 우리 아가 꼭 바로 확인하고 사진 찍어 주라고 했단다.

## 만남 1\_생후 2일 차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우리 아가 수유를 하려니 너무 가법구나. 이 아기가 엄마 배에서 나왔다니! 처음이 아닌데 수유하는 것이 낯설다. 3년 만에 하려니 낯설고 형과 달라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설다. 근데 너무 귀.엽.다.

손가락, 발가락 너무 작은데 손톱이 있고 작은 입은 오물오물 우유를 먹고

눈을 깜빡이더니 눈을 뜬다! 악- 이진 뭐가! 찰칵찰칵. 일단 이 귀여움! 찍고 보자^^

## 만남 2\_생후 5일 차 심장이 쫄깃한 하루를 보내다

처음 마주하며 수유하러 갈 때 얼굴빛이 좀 노리끼리한 느낌이 들었지만,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건가 물어보지 않고 지나쳤단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니, 황달이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당장 황달 안대를 구매하고 황달 치료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단다. 황달이란 것이 신생아들에게 흔한 증상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됨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외딴으니 순간 침착해지지 않더라고.

당시 엄마 혼자 있었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아빠는 형을 돌봐야 하기에 엄마 혼자 입원해있을 시기였음) 간호사에게 몇 번이나 확인하며 필요한 절차 설명 듣고 부랴부랴 황달 치료 입원 수속을 밟고 치료가 시작되었지. 그렇게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신생아실에도 다급하게 오라는 콜을 또 받고 엄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같았어.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 계단으로 아픈 몸을 이끌며 갔지. 심장에 잡음이 들린대. 심장 정밀 초음파를 빨리 진행해야 할 거 같으니 서명을 하래. 허둥지둥 서명을 하고 엄마는 불안, 초조의 마음으로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어. 그때의 마음을 담은 내용을 아기 수첩에 적었단다.

결과는 오후에 나왔고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심장으로 통하는 경로에 구멍이 출산과 동시에 닫혀야 하는데 2개의 구멍이 닫히지 못하



고 열려 있는데, 수술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 구멍이 아니고 사이즈가 작아서 괜  
찮겠지만 큰 병원 가서 추적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해 주  
시며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단다.

애써 태연하게 설명을 듣고 나왔지만, 엄마는 이 내용을 아빠에게, 친정엄  
마에게 설명하며 눈물을 머금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으며 잘 참았는데  
널 수유하러 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건강하다고 방심해서 그런 건 아  
닌지, 엄마가 건강을 잘 못 챙겨서 그런 건 아닌지 모두 엄마의 탓인 것만 같  
아서 황달 치료 안대를 쓴 너의 모습을 보고 끼이끼이 울다가 나왔어.

아,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 우리가 함께한 시간 1\_생후 한 달

엄마는 우리 아가가 퇴원하면서부터 먹는 양, 대변 횟수, 수면을 체크했어.  
세상의 빛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낮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을 것인데 잘 먹고, 중간중간 깨며 보채지만 잘 자고, 잘 싸는 널 보며 한 달을  
잘 살아준 것이 고마워 엄마는 성장 달력을 꺼내 찰칵 기념했단다.

#### 우리가 함께한 시간 2\_생후 35일

하루하루 소중한 우리 아가. 예쁜 노란 꼬까옷 입은 것이 너무 예뻐서 사진  
을 찍고 싶은데 우리 아가는 싫은지 얼굴을 찡그리는구나.

우리 쪽쪽이 한번 물어볼까? 어라? 가만히 있네?

노란 꼬까옷 입고 쪽쪽이한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 우리 아가의 생애 첫 쪽  
쪽이 장면 나중에 크면 보여줘야지~ 생각하며 찰칵 남겨본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3\_생후 40일**

어느 화창한 날. 잠든 너의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날 잠든 너를 당장 안아 깨우고 싶은 마음 꼭 참으며 카메라에 담아본다. 일어나면 뽀뽀해도 되니?

**우리가 함께한 시간 4\_생후 45일**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여쁜 내 새끼. 이리 입혀도 저리 입혀도 어여쁜 내 강아지. 엄마는 오늘도 너의 모습을 담기 위해 패션쇼를 하고 이리저리 사진을 찍어 담는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5\_생후 50일**

스튜디오로 가서 성장앨범을 찍으면 더욱 멋스럽고 예쁘지만, 엄마랑 아빠는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을 추구하기에 50일 셀프 촬영을 해주기로 했어.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셀프 촬영대여 사이트를 열심히 검색했고 컨셉을 구상했어. 구상이 끝난 엄마는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고 50일에 맞춰 도착한 물품을 갖고 아빠랑 열심히 우리 아가 셀프 성장앨범을 찍어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질퍼 보이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우리 아가 50일 사진이 세상 멋지고 예쁘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6\_생후 60일**

우리 아가 천사니? “여러분~ 우리 호열이가 통잠을 자려 해요.”  
수면 교육을 따로 한 것이 아닌데 점점 수면시간이 늘어나는 건 무슨 일이니. 형은 4~5개월쯤 돼서야 수면 교육하며 백색소음 원 없이 들었는데 우리

호열이는 따로 수면 교육 없이 밤 9시 잠들기 전 수유를 하고 불을 끄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준 것이 끝인데 새벽 2시까지 자더니, 4시까지 자고, 6시까지 자는 것이 아닌가.

너 뭐야? 엄마 이렇게 설레게 해도 되는 거야?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자주면 엄마 어찌라는 거니. 덕분에 엄마 너무 행복하잖니~ 잠을 푹 잤더니 엄마도 기분이 좋고 우리 아가도 기분이 좋고 룰루랄라~ 신나게 아기 체육관 해보자!

**우리가 함께한 시간 7\_생후 70일**

산뜻하게 빨간색 옷을 입고 터번을 쓴 너의 모습,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 건 무조건 남겨야 한다. 카메라를 들고 엄마는 재롱을 떨며 사진을 찍어본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8\_생후 80일**

콜록콜록. 6개월까지는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데 우리 아기는 형이 있어서 그런지 감기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코가 그렇그렁~ 예취 예취! 기침. 너무나도 안쓰러운 첫 감기. 벌써 감기약을 먹다니 안돼. 안쓰러운 내 새끼 감기약 먹고 얼른 낫자.

**우리가 함께한 시간 9\_생후 90일**

엄마는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빵을 먹으러 갔지. 근데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좋니. 아빠한테 우리 아가 안고 있는 거 한 컷 찍어 달라고 했지. 근데 엄마도, 호열이도 준비가 안 됐는데 아빠 벌써 찍었니?

아빠는 뭐가 그토록 바빴을까? 궁금하네^^

**우리가 함께한 시간 10\_생후 100일**

아들, 100일 축하해.

체중 : 2.89kg → 7kg

신장 : 50cm → 63cm

머리둘레 : 32cm ⇒ 55cm

홍위 : 30cm ⇒ 음... 몇일까?

백일잔치라는 것이 예로부터 100일을 넘기면 백 일 동안 건강하게 자란 아이에게 잔치를 벌여 축하해 주었다고 해. 엄마도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축하해 주기 위해 엄마 나름으로 열심히 소품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했단다. 또한 우리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 모두가 축하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 호열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졸리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했거든.

어른들의 시간과 아기의 타이밍을 고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란 걸 느끼며 울고 자지러지는 널 붙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너무 막 찍었을까? 밤에 살펴보다가 주인공 사진이 이진 아니다 싶어서 엄마는 아침에 우리 호열이가 가장 기분 좋은 타이밍을 찾아 미니 상차림을 차리고 사진 찍어 주었다. 엄마의 정성이 느껴지니?

**100일 기념 선물**

생후 한 달 되었을 무렵 우리 호열이 태어났던 병원의 소아과를 갔는데 심장잡음을 발견한 의사 선생님께서 영유아건강검진을 봐주시게 된거야. 그때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알려주셨는데 현재까지도 소리가 좋지 않으니깐

1~2달 더 미뤘다가 큰 병원 가서 초음파 검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100일을 넘기고 광주기독병원을 예약해서 가게 되었단다. 초음파, x-ray 검진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신중하게 체크해주셨어. 엄마는 너를 잡아주며 긴장을 계속하고 있었지.

엄마는 그래. 아기가 아프면 결과가 괜찮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긴장하게 되거든. 그렇게 모든 검사가 끝이 나고 결과를 듣는 시간. 두둥! 이게 무슨 일이니. 뿔러있던 구멍 2개 중 한 개는 닫히고 나머지 한 개는 정밀하게 잘 보이지 않는 이상 안 보일 정도의 크기이기에 5~6개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닫힐 거 같으니 추적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 엄마에게 100일 선물을 선사했구나. 고맙다 아들! 10월 18일 이날을 기억하며.

둘째가 태어날 당시 조금이라도 아픈 것이 모두 나의 탓인 것 같아 아픈 손가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애정이 가게 되더라고요. 애정을 갖고 살펴봐서 그랬을까? 둘째가 점점 더 예쁘게 느껴지고 매 순간이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만큼 둘째가 예쁜 행동을 보이니 애정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매 순간을 지나칠 수 없어 사진과 함께 일기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지금까지 110일 기록을 적었지만 계속해서 200일, 300일, 매 순간을 기록하며 행복한 시간 잊지 않으려 합니다.

•• 박기운

##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 남자이지만 육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아기일 때 잘 본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매일 누나 집으로 퇴근했었죠. 심지어 매형이 술 먹으러 나가는 날 누나가 절 보내주지 않아서 저녁에 조카를 돌봤던 슬픈 추억도 있죠. 하지만 제 아이가 태어나고 시작한 육아의 결과는 당연히 좌충우돌 우당탕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변인으로서 조카를 돌보는 것과 주 양육자가 되어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계획할 때부터 우리 부부가 꼭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최대한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직접 아이를 케어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요령 없이 자신감과 힘으로만 시작한 육아. 그리고 잠투정이 심한



우리 아이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건강과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요. 서서히 허리가 당기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혹시나 하고 받았던 MRI 검사에서 결국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죠. 건강! 튼튼! 다부짐! 듬직함! 이 무기였던 제 인생에 허리디스크라는 말이 붙을 줄이야. 굉장한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좀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정형외과에 방문하곤 합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아내의 복직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기간 1년 이후면 보통의 워킹맘들은 복직합니다. 서서히 우리 아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등원시키고자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러던 중 당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월급을 100% 보전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거다 싶어서 저도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월급을 보전해 주는 3개월만 하고 싶었지만, 직장에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직장 특성상 6개월 단위로 휴직해야 한다고 했고, 상황상 5개월 휴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육아휴직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무섭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낮의 적막함, 그 가운데 느껴지는 분주함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가 휴직 기간의 얻은 육아 팁들은 그닥 의미 없을 듯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수많은 인생 선배들의 조언들은 우리 아이와 잘 맞지 않더라

고요.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을 아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부딪치며 아이와 맞춰갔고 그렇게 아이와 우리 부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생계의 곤란함 때문에 5개월 뒤 복직을 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와이프가 유연근무를 사용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버티다’라는 표현이 맞는 듯합니다. 현재 이 시대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버티는 일인 듯합니다. 모두 잘 버텨내시길.

그렇게 아빠의 육아휴직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육아가 끝난 건 아니죠. 참고로 지금은 둘째 딸도 태어나 4살, 6개월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대 많이 변해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는 인식이 강한 듯합니다.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상에서는 별종으로 보더라고요.

신기한 건 뉴스에서는 육아 휴직한 아빠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던데 왜 제 주변에는 없을까요? 가끔 많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절 바라볼 때는 그냥 ‘많이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전 도와주는 남편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아등바등 버텨내고 있습니다.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고 다급한 운전으로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워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아이와 놀이터에 가고 저녁을 준비해서 먹이고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산책하다가 간식을 먹이고 겨우겨우 설득하고 달려사 양치시키고 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재우고 밤늦은 시간 아이가 깨지 않을

까 걱정하며 조심조심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마지막에서야 씻고 그사이에 잠에서 깬 아이를 다시 달래서 재운 뒤 겨우겨우 잠드는 주 양육자입니다.

지금은 둘째도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새벽에 울고 깨면 졸린 눈 비벼가며 어르고 달래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다시 안아서 재우고 그 옆에서 아이가 깽깽 새우잠을 자다가 아침이면 다시 1분이라도 천천히 출근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직장에서 1분이라도 빠른 퇴근을 위해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전 ‘잘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얘기하다가 “어젯밤에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왜?”라는 반응이 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먹었으니까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모습이 놀라워서 저도 같이 놀라요. ‘우리 집에는 6개월짜리 아기가 있고 나는 그 아기의 아빠인데 내가 잘 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하고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었을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첫째 아이와 여행을 가서 둘째 갓난아기와 단둘이 1박 2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아이가 돌인 부모들은 한 명만 없어도 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아내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빠랑 갓난쟁이만 두고 어떻게 하나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편했는데….

사회의 엄마들은 아빠가 육아 이야기를 하면 잘 끼워주지 않아요. 아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외롭습니다. 나도 힘든데 말할 사

람, 공감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으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한순간에 인식이 바뀐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였으면 좋겠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주 양육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 양육자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이 목욕시키지 못하는 부 양육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했으면 한다는 말은 아빠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

전 상사에게 ‘아이는 집에서 알아서 키우라고 해라’, ‘퇴근 후에 출장도 다니고 그래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돈도 주고 어린이집도 많고 조부모들은 다 돌봐주고 등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아이에 관해서 물어보면 선뜻 낳으라고 추천하지 못합니다. 잘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아이는 인생의 축복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전 너무 행복하지만 너무 힘들기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 선택이고 단연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과 정책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단연 최저수준을 달리는 이유가 무엇일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광수

## 육아하는 아빠, 남자 육아 그리고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나는 일상과 맛집을 공유하며 광주 지역의 여러 업체로부터 협찬도 받던 블로거였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블로그를 쓸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크게 만든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작고 소중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아빠 마음에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웠고 걱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대디'라는 새로운 부캐를 갖게 됐다. 그러다 아이의 육아가 어느 정도 패턴도 생기고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다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 집은 '워킹맘, 육아대디'라는 나름 현대판 가족이기에 아내 핸드폰보다 내 핸드폰에 아이의 사진이 넘쳐났기 때문. 그리고 아이의 성장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블로거 아빠의 마음 때문. 육아 체험 수기를 작성하려고 블로그를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고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 글을 쓰기 전부터 몽클하다. 육아휴직 아빠가 작성하는 육아 체험 수기.

###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출산 후 일상

육아를 하는 모든 엄마 아빠는 공감하겠지만 한 번씩 정신이 탈탈 털리고 체력이 바닥끝까지 왔다는 걸 경험한다. 정말 극도의 우울감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 나는 끝자락이지만 20대 남자이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 날까지도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해서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육아,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기는 2시간 단위로 수유를 하고, 아직 발달하지 않은 소화기관 때문에 트림하기까지 30분 정도는 안아주고 있어야 했다. 아기가 잘 때 자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내는 유축해야 했고 나는 젖병 세척, 소독해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기가 자는 틈에 헐레벌떡 뭐라도 먹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이벤트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유튜브,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공부해야 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다음 수유 팀이



온다. 결론은 쉼 여유, 잠잘 여유는 없었다.

도우미 이모가 와주셨지만, 아내는 완모직수를 하던 때라서 사실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어도 잠 못 자고 고생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모님이 계실 때라도 조금 쉬고 잠을 자야 하는데 엄청난 책임감으로 무장한 아내는 자려고 눕다가도 아이가 잉~하기만 하면 다시 아기를 안게 되는, 그런 엄마였다. 그렇게 24시간 아내는 아이랑 붙어있어야 했고 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그렇게 새벽을 지새우고 다시 출근하고, 출근하고 돌아와도 절대 쉴 수 없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아내가 있고 세상에 믿을 곳이라고는 엄마, 아빠뿐인 아이가 있어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건강한 임신 생활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정작 출산 후에 대한 준비는 너무나 부족했다.

### 임신 때보다 출산 후,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 부부는 4년간의 연애, 1년의 신혼 기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이라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등에 대해 매우 많은 이야기를 나눈 편이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부모, 육아 등에 대한 소통이 활발했다. 아내는 임신과 출산으로 변화하는 몸에 대한 걱정과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질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육아와 직장 생활에 대해 얼마나 중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나는 물론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책임져야 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가족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 행복. 아이도 엄마도 건강해야 하고, 육아와 가사 그리고 직장생활의 밸런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부분 경제력. 아내와 나 둘이 있을 때와는 고민과 생각의 깊이가 차원이 달랐다.

어쨌든 매우 많은 소통을 하고 서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부부였지만 24시간, 쉬이 없는 신생아 케어는 우리를 지치게 했다. 앞서 말한 출산 후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준비되지 못한 우리였다. 태어난 아기가 알.아.서 잘 클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 절대 아니다. 어쨌든 잘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분유 타는 법도, 옷을 입히고, 기저귀 채우는 법도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고 책에서 찾아 헤매야 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24시간 동안 잠 못 자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새로워 배워가며 서투른 손으로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사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는 건 아내도 나도 처음이었고 행여나 부서질까? 로션 발라주는 것도 너무 무서웠던 그런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퇴근하고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니까. 아내도 이미 충분히 힘들다. ‘집에서 애만 보는데 뭐?’라고 생각한다면 주말 독박 육아를 추천한다.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다. 아이‘씩이나’ 보는 것. 그것도 출산 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으로 말이다. 내가 육아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상위의 위치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힘들면 잠시 멈추고, 미뤄버릴 수 있기 때문. 남편의 육아, 돕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일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 감사하게도 백일의 기적이 일어났다

2시간 텀으로 먹고 자고 싸고, 완모야기라 하루에 응가도 7~10번 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울어대면 아내도 같이 울고,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밤잠을 못 자니 아내는 더 힘들어하고, 수유가 처음이라 자세가 안 나와 골반, 허리, 어깨 안 아픈 곳이 없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입이 짧은 아이라서 조금씩 밖에 안 먹어 수유 텀 늘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조금 먹고 빨리 배고파하고, 그러다 보니 통잠은...

24시간 철야로 애쓰던 어느 날, 깜박 잠들어 놀라서 일어났는데 아이가 수유 텀을 넘기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새벽 수유가 한번 빠지면서 아이는 4시간 텀을 지키고 새벽엔 두 번만 깨도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줬다. 물론, 힘들다. 그렇지만 잠을 전혀 자지 못하다가 2~3시간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백일 무렵 아이는 수유 패턴도 생기고 잠 패턴도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힘들고, 걱정되고, 뭔가 마이너스적인 감정들이 쌓여갈 때 이 아이가 기쁨을 주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눈을 마주칠 줄 알고 웃어 주기도 하고, 목을 가누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뒤집고 스스로 앉을 수 있고, 너무나 힘들다가도 이렇게 커가는 모습 하나씩 보여주며 나를, 아내를 다시 힘내게 했다.

### 남자의 육아휴직, 장려되어야 할 정책

출산휴가 90일, 솔직히 말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 수다. 10개월 동안 천천히 변해갔던 몸이 출산하고 단 몇 주 만에 되돌아와서 일상생활을 복귀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생각과 근거로 출산휴가가 3개월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나마 아내는 아이 출산 전날까지 일했다. 그래서 출산 후 90일을 풀로 쓸 수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지 못해 임신 후기에 들어서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50~60일을 쉬고 복직해야 하는 상황. 물론, 육아휴직이라는 정책이 있으나 아직도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집에서 애 키우고 나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놀다 와서 승진하길 바라? 이런 꼰대식 발상, 아이가 어른이 돼 직장생활을 할 때쯤엔 그때는 없으려나.

어쨌든 아내는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해야 했고 그 시점에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기에는 너무나 어린 아기였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의 아이니까, 육아휴직을 하기로!

사회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차별 인식이 짙은 가사와 육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자가 애 낳고 집안일을 하면 남자는 돈을 벌어서 이런 구조가 익숙한 세대이고 또 이 세대가 직장 내 결정권 층에 있으니 남자의 육아 휴직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여자만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고 우리의 아이니까. 그리고 이 인식에 우리 아이가 성장해 육아를 하게 될 때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길. 그때가 되면 정말 임신과 출산을 진정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지길.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있는 정책이라도 현실에서 제발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 갑자기 주어진 나의 시간, 내가 뭘 했더라

출산휴가 90일을 끝내고 아내는 복직했다. 그리고 나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물론 주변의 걱정을 가득 안고 아이 육아를 시작했다.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패턴을 잡아갔던 때라 혼자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돼 있었다. 그러나 육아는 산 넘어 산이라던가. 아기가 커가면서 얼굴을 인식하게 되고 낮을 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좋게 말하면 애착 형성이 잘 된 것이지만 월령에 맞게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 화장실도 맘 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바운서나 쓰서를 태워 문 앞에 얹혀 놓아야 하는 그런 껌딱지 일상이 됐다.

아이가 뒤집고, 앉고, 기고, 서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다. 그러나 행복과 동시에 더 많은 일들이 생겼다. 한번은 아이를 거실에 두고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분명 울어야 할 아이가 울지 않아 거실로 갔다. 세상에 아이가 기어서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이가 기어가는 길에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이 있었

더라면, 끄적했다. 그러다 보니 안전문, 베이비룸 등을 설치하게 되고 한시라도 보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쿵, 저기서 쿵이니 일은 더 많아졌다. 심지어 한 공간인데 젖병 세척도 못해... 아기 띠에 어부바해서 젖병을 씻는 굉장히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힘들지 않냐며 평일에 쉬시면서 아이를 봐 주실 테니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하셨다. 너무나, 너무도 감사했다. 이게 얼마만의 자유고 얼마만의 시간인가. 그냥 무작정 씻고 옷을 입고 나갔다. ‘그런데, 내가 혼자 뭘 했더라.’ 아이가 없는 일상이 이상하리만큼 이상했다. 낮설고 허전하고 내가 혼자서 뭐 하고 놀았는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평소 좋아했던 카페를 들어갔다. 결국은 시계를 보며 아이 밥 먹을 시간인데, 아이가 잠 잘 시간인데. 결국은 또 아이 생각. 핸드폰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도 결국은 갤러리에 들어가 아이 사진. ‘아, 안 되겠다. 그냥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너무 빨리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혼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아이랑 있는 것이 나의 일상 같다고 답했다.

엄마들이 지역맘카페 활동을 하는 이유를 어렵פות이라도 알 것 같다. 육아를 하면서 친구 만날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 밖에 나가도 혼자라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엄마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육아휴직 끝자락에서

아이의 독박 육아를 6개월 동안 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때도 나를 힘들었다. 업무, 성과, 야근, 회식 등 회사 나름에서도

스트레스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직장은 '퇴근'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 시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육아? 육아는 그냥 24시간을 함께해야 한다. 나만의 시간, 나의 시간은 상상하기 어렵다. 늘, 매 순간을 돌봐줘야 하는 아기가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었지만, 6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그 기간에 어린이집에 맡겨졌더라면 지금처럼 내 갤러리가 아이 사진으로 가득 차지는 못했겠지. 아이가 뒤집고, 소리 내 웃고, 앉고, 걷고 이 모든 성장 과정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커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니 나는 6개월의 시간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제는 초콜릿을 먹는 4살 아이가 됐다. 아주 활발하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다. 신생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지금의 아이 월령에는 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우리 엄마가 나를 고민하듯, 육아는 끝없는 걱정이다. 아기를 키우면서 기뻐던 만큼이나 근심, 걱정거리도 정말 많아졌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왜 이렇지, 이렇게 해도 되나 등의 두려움. 그러나 결론은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결론.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돼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바닥을 친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미 좋은 부모가 돼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바뀌어야 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출산 풍조가 만연하고 육아에 쏟

을 에너지를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모든 육아하는 엄마, 아빠 오늘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칭찬합니다!

## •• 이철웅

# 감격, 이제 세 번째 눈물을 흘릴 차례

### 만남

2016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인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가볍게 차 한잔 마실 생각이었으며, 외국인이라는 호기심과 편견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라는 짝막한 인사에 내가 지금껏 가졌던 편견과 우려 등이 일시에 불식됨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인연, 운명이구나!’ 하는 느낌과 동시에 50대가 되도록 홀로 지냈던 시간들이 찰나처럼 스치며 이 여인 만큼은 놓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미 나를 지배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던 차에 아내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력 등으로 상처를 입고 결별한 사연을 듣게 되었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과 진심으로 이 여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 법률적 문제와 첫 아이 출생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자신을 이 말속에 빠뜨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국내법상 외국인과 혼인 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의 미혼 증명서가 필요한데 필리핀은 이혼제도가 없어 혼인 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바, 이 소송을 2017년에 시작하여 코로나와 필리핀 화산폭발, 태풍, 필리핀 판사의 판단 유보 등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형으로 머물러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2018년 1월 첫째 아이가 2.37kg의 작은 생명으로 우리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흘러나오는 ‘인연’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조심스러워 안지 못한 채 미소만 머금은 내 모습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이었으리라 반추해 봅니다.

이후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로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관계로 교육, 의료 등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서운함이 밀려오던 무렵인 2019년 10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 둘째의 출생과 무국적자

살면서 법률적, 제도적 다양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담담하게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대사관에 둘째 아이 출생신고를 통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함을 당연시했는데, 대사관 측 답변에 우리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불법체류 및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우리의 사례는 국적 취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 출생신고는 법률에 따라 더욱 불가한 상황. 뉴스 이슈에서나 가끔 접해본 ‘무국적자’의 슬픔을 내 아이가 갖게 되었다는 현실에 암담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는 혼인 관계의 해소보다 아이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정말 쉽 없이 대면, 비대면으로 뛰었습니다.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법원, 출입국관리소 등 국적에 관련된 부서 담당자를 수없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뿐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 판례를 접하고 ‘바로 이거다! 신이 내게 주신 한 수가 있구나!’ 하는 기대

감에 2015년에 제정된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규정. 일명 ‘사랑이 법’을 통해 즉시 가정법원에 전후의 사정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의 출생등록과 첫째의 국적취득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도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서류와 국내 관공서 서류의 번역, 공증을 통한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했고, 가정법원의 기일이 잡혀,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판사님께 진실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숨죽이며 몇 주를 기다린 결과에 우리는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무국적 상태로 지내온지 1년여 만에 드디어 출생등록을 하게 되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첫째 아이의 국적 취득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4살이 넘도록 교육과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법률기관과 행정기관에 진심 어린 국적 취득 절차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필리핀 대사관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번역, 공증 등 관련 서류의 준비는 지난 수년간의 노하우로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끝마치고 5개월 기다림은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법원 판결문과 출입국관리소에 필리핀 국적 포기서를 제출한 후 구청에서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과 첫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 번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짧은 번 아웃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어려움의 양면성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짧아지면 육아휴직도 해봤고, 현재는 육아 돌봄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서 정부의 좋은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게 사실입니다.

7~9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장염, 폐렴, 수족구병으로 돌아가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내 인내는 한계치에 달하고 한 달에 5일 정도 근무하면서 내 생활이 무너지니, 나도 모르게 번 아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 엄마 외에는 어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자 스스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통해 나도 모르게 실컷 울고 나니 한결 가벼운 생각이 들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희망을 주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 흘릴 눈물

4살, 5살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날마다 꼭 껴안고 '사랑해'라고 말하면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답하니,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일들이 우리 집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늦은 나이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만나는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정년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새로운 활력으로 내게 다가오니 말입니다. 아이들 엄마도 나보다 더 넓은 포용력으로 가



정과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필리핀 소송이 조속히 해결되어 정식 혼인 신고를 하고 완전한 다문화 가정이 되어,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큰 작용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정

## 매력덩어리 정우정♡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성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부부는 남들과 비교해 상당히 늦은 나이인 39, 37세에 결혼을 했고 둘 다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신혼의 단꿈에 젖어 살기보다는 저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와이프는 직장 퇴근 이후 편의점으로 곧장 달려와서 함께 일하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에 아이를 갖기보다는 둘이서만 서로 위하며 살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현실이고 현실은 냉혹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던 결혼 2년 차에 와이프가 평소와는 다르게 몸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다녀왔고 간단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웬지 모르게 임신테스트기를 써보고 싶다가래 “야! 우리 아니거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지나쳤는데 그 주 주말에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간 양가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 새 생명의 잉태에 따른 기쁨에 의한 눈물이 아니





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진 행복이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지만 저희 둘은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가올 또약이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약이’라는 이름의 탄생 비화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저희 부부는 아파트 청약은 힘들고 결혼 후 신혼살림을 차릴 곳을 찾지 못해 LH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10개월 후 태어날 아기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꿈꾸며 청약이라는 예명을 거쳐 로또+청약이라는 ‘또약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로또처럼 찾아온 아기가자, 우리에게 청약 당첨을 가져올 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럼 ‘또약이’라는 이름의 기운은 어땠을까요? 저희 부부는 2027년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선분양 당첨이 되었고, 당연히 구 또약이 현 우정이의 활약 덕택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수기로 돌아가자면 우정이를 임신했던 시기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인지라 임신기간 내내 마음을 졸이며, 밖으로 돌아다니질 못하고 주로 집에서 생활했는데 그 덕에 우정이가 성격이 차분하고 책을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밖으로 돌아다니질 못했기에 저희 둘은 오디오 북을 듣거나, 들릴지 안 들릴지 들리더라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우정이와 끝없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정이를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고 2022년 6월 18일, 3.1kg의 자그마한 저희의 천사 우정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정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힘을 주라고 계속 독려하던 의사와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힘을 잘 주지 못해 이리다 잘못되면 어찌

나 걱정하던 와이프의 모습, 모두가 걱정하던 그때 큰 울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친 조그만 아이, 안도감과 기쁨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태어난 우정이는 일주일 정도를 조리원에서 머물게 되었고, 직업적 특성상 같이 머물 수 없었기에 저는 와이프의 심부름과 간간이 멀리서나마 우정이를 보는 것으로 보고 싶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지난 후 장모님 댁으로 향했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를 태우고 가다 보니 온갖 진동과 바닥 소음 등이 다 느껴져 식은땀이 나더군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이후 우정이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무안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힘든 삶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커가며 메뚜기도 보고, 흙도 만지고, 닭도 보며 살게 해주고 싶어 장인, 장모님께 납작 엎드려서 시작하게 된 무안에서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던 저희와 달리 장모님은 세 딸을 키운 어머니로서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한산도 대첩을 지휘하던 이순신 장군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필요 물품과 낮잠 시간, 목욕 시간, 수면시간 등을 정했습니다. 과연 우정이가 잘 따라와 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3개월의 시간 동안 모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이제는 저녁 7시가 넘으면 눈을 비비며 잠을 자겠다는 신호를 주는 우정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우정이는 7시 무렵 눈을 비비기 시작해서, 7시 20~30분쯤 목욕을 하고, 이후 우유를 먹고 8시 언저리에 잠이 듭니다.

제가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적느냐면, 육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수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낮잠은 시간이 틀어지거나 안 잘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밤 수면은 아이의 성장호르몬 분비뿐 아니라 양육자의 업무와 휴식에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규칙적인 8시 수면 덕에 밀린 업무 혹은 가족 간 육아에 관해 얘기도 하고, 수첩에 적힌 그날그날의 우유 섭취량, 수면시간, 대변 횟수 점검 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지나갔고, 셋이 하던 육아를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이 하셔야 했기에 서로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순신 같은 장모님이 계시더라도 혼자만의 육아는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저희에게는 히든카드 같은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로 본인은 딸들 셋을 어떻게 키운 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육아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던 분이 180도로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정이가 본인의 손자이자 첫 번째 손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인어른을 그렇게 바뀌게 하진 못했을텐데, 우정이는 히든카드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세상이 마냥 좋은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옆에 없거나 잠이 들어있더라도 혼자 생글생글 웃고 있고, 우유를 먹을 때면 손가락 하나 잡고 먹는데 아빠인 저뿐만 아니라 장인어른도 그 모습에 넘어가셨죠. 이후 장인어른은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매력덩어리 정우정이라고 하시며 특히 목욕 후 우정이의 잠자리는 장인어른이 도맡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나가셨더라도 저녁 8시만 되면 우정이를 재우러 들어오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가 위에서 강조했던 안정적인 수면 교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느낀 또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의문이긴 하지만 아이가 과연 내 말을 알아들을까 단순히 본인 이름 정도만 알아듣는 건 아닐까 했지만 지금은 저희 우정이 기준으로 아이도 어른들의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과 우정이와의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장모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사랑합니다’를 우정이에게 얘기하시며 우정이와 대화하고 책도 읽어주시는데, 가령 우정이가 싫어하는 가재 수건으로 세수하거나 얼굴에 로션 바를 때 기존에는 그냥 바르다가 이후 장모님 조언에 따라 ‘예쁜 사람, 아이 예뻐!’ 등을 외치며 해주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우정도 웃으며 받아들이더군요.

우정이가 밝은 아이로 자라는 데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숨어있는데, 이곳 기준 임영웅보다 인기가 좋은 우정이이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잘 웃는 아이이고 또한 이곳은 아이가 귀하다 보니 장인 장모님 지인분들이 매일 아침 오셔서 출근길에 들러서 얼굴도장을 찍고 가시고 안아주십니다. 아마도 우정이는 그분들의 마음을 전해 받으며 더욱더 밝은 아이로 커가고 그분들은 해맑은 아이의 웃음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분이 우정이의 성장을 같이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렇듯 웃는 아이 정우정으로 성장하는 거 같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정이가 5개월이 되어가는 데 점점 혼자 있으려 하지 않고 옆에 항상 할머니가 있어 줘야 해서 아무래도 어머니가 힘이 부쳐 하시는 거 같아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루하루 힘에 부치시는 거 같지만 매일 매일 사진과 동영상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사랑받는 아이는 이렇게 자

라는구나! 이게 사랑받는 것이구나!’ 하며 하루에 피로를 날려주는 박카스 정우정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웅얼이도 하고 감정표현을 하는 우정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준 우정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키우면서 힘들지 않다면 그건 거짓이겠지만, 우정이를 통해 우리 가족은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이 100일 문구에 썼던 말인데 김희정과 정성엽이 만나서 김희정성엽이 되었고, 여기에 우정이가 더해져서 ‘김희정우정성엽’이라는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축복처럼 우정이가 우리에게 와 주었고 우리 집안에 큰 기쁨이 되어 줘서 고맙고, 밝고 건강하게 우정이에게 꽃길만 있기를 바라며...

육아에 같이 힘써 주고 계신 두 분 장인 장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테라스에 장인어른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나눈 대화를 하였는데, “저는 우정이를 친가, 외가 호칭을 나누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것이고, 또한 아이이니 분명 과자나 사탕을 좋아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것도 직접 고르게 하며,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 합니다. 혼자 자라서 본인밖에 모르는 아이, 이기적이고 베풀 줄 모르는 아이가 되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랄 정우정을 꿈꾸며, 이만 줄입니다.

전국에 있는 육아 동지들이여,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윤양근

## 육아가 천직인 아빠의 육아 휴직기



### 팀 최초 육아휴직을 선언한다

내 꿈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다.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기회가 생겼다. 드디어 아빠가 되었다! 내내는 회사에서 중책을 맡은 해에 임신하게 되었고 입덧, 임신성 당뇨, 코로나 감염 등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 고생한 아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육아휴직이었다. 몸조리도 안 된 몸으로 육아를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와 나의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팀 내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우리를 위축되게 했기 때문이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고 동료들에게 휴직 메일을 쓰고 나니 걱정과 격려의 전화가 쏟아졌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나의 육아휴직!



## 딸바보가 되다

기도하며 기다린 순간이 왔다. 나와 아내를 쫓 빼닮은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과 우리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가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딸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애 처음 느껴보는 벅차오름을 경험했다. ‘너구나.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내 사랑이구나.’

아내와 함께 병원과 조리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다.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어서 애가 탔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있다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기를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게 바로 딸바보구나.

## 장모님의 인정을 받다

아내와 내가 육아휴직을 썼지만,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난생처음이었기에 조리원에서 집으로 왔을 때, 장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나는 육아휴직자의 본분에 맞게 조리원 생활하는 동안 신생아 목욕시키기, 분유 먹이기, 트림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기저귀 갈기 등의 노하우를 유튜브 선생님들을 통해 숙지해두었다.

조리원에서 나온 첫날, 여러 번 익히고 실습했던 대로 아이를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목욕까지 시켰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께서서는 “윤 서방은 내가 필요 없겠네!” 하시며 칭찬을 거듭해주셨다.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할 수 있던 신생아 시절이었다.

##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는 건데?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었다. 아기를 씻기고 달래고 재우는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 하는 것 하나! 바로 모유 수유였다. 뱃구레가 크다던 딸은 다른 부분에선 아무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 순둥이였지만 잘 먹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빠는 대로 삼키지 못해서인지 매번 수유 때가 되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아내는 본인 탓인 것 같다며 울상이 되어버렸다. 우울해하는 아내를 달래 기분 전환하라며 카페를 보내놓고 나는 비슷한 사례와 해결책을 찾아 육아 서적과 유튜브를 뒤적였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육아 선배님들의 말을 믿고 여러 해결책을 적용해 보다 보니 어느덧 우리 아이도 140일이 되었고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 육아휴직 전도사가 되다

명절이 지나고 팀 회식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러 다녀왔다. 엄청난 환대와 더불어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야 했다.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를 키우고 있는 동기들과 출산을 앞둔 선배배들의 질문은 다양했다. 금전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는지, 회사와 국가의 육아휴직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육아휴직이 적성에 맞는 지 등등 나도 육아휴직을 쓸 적에 궁금했던 내용들이고 먼저 가본 길이기에 아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알려주었다. 육아휴직을 쓸 적에 진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직장 내 나의 커리어를 염려하시던 팀장님은 “6개월 더 연장해도 되네. 자네가 육아휴직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어!”라며 격려해주셨다. 어쩌면 우리 팀에 아빠 육아휴직 붐이 불지도 모르겠다.



###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내일은 딸아이의 어린이집 상담을 하러 가는 날이다. 내년 1월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걸어뒀기 때문이다. 우리 딸의 첫 사회생활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빠의 끝 사랑 우리 딸, 아빠는 우리 딸의 모든 순간에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해.”

### 사랑이 만져지는 기분이야

딸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만, 특히나 나를 보고 활짝 웃어 줄 땐 이 모습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다. 얼마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나는 우리 딸을 안고 있으면 사랑이 만져지는 기분이야.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지?” 본인에게는 그런 기분이 안 드는 거냐며 살짝거리며 아내를 보니 아내에게는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둘이나 있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다.



광주아이키움

육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2023년**

● 김정호

## 외국인 엄마를 감동시킨 나의 육아 멘토 광주 아이키움 고마워!

안녕하세요. 저는 8세 여자아이를 키우는 다문화 가정 엄마입니다. 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에 외국인이 가입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남편 계정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인 아빠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어서 한국 문화가 매우 낯설고 육아에 대한 지식 정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 실수가 잦았고, 아이가 아프면 제가 무엇을 잘 챙겨주지 못해 아픈가 하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것이 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였습니다. 아이 키움을 통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키움 뜰 실내 놀이터와 키움 뜰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집에서 혼자 아이와 있을 때 보다 많이 숨이 트였고, 아이의 나이별에 맞는 적합한 장난감 대여 및 책을 대여할 수 있어서 많은 장난감을 체험하고 제가 구매해 주지 못한 것들은 많은 부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보육 교직원분이 육아 초보인 저희 부부를 위한 부모 교육 상담과 심리 정서 상담을 해주셔서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던 저의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모국을 떠나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이 외로웠던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육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필 코로나 시절이 겹치면서 외출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가 커갔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은 체험학습을 원하고 경험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 돌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광산구 첨단 행복주택 공동육아 나눔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체험학습을 하는 곳으로 아이뿐만 아니



라 부모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첨단 행복주택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많은 체험학습을 하였는데 그중 가장 생각나는 프로그램은 직업 체험교육과 힐링 클래스, 명절 쿠킹클래스였습니다. 명절 쿠킹클래스의 경우 명절에는 제 모국에 갈 수가 없어 한국에서는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주변에 일가친척이 없어서 도저히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았고, 어떤 명절 체험을 하려고 해도 항상 한발 늦어서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명절에는 어떤 음식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아이에게도 휴일과 명절이 같은 날이 돼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마침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명절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 생겨서 아이와 제가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체험교육과 힐링 클래스도 많이 유용했는데, 직업 체험교육은 직업에 대해 지식이 없는 아이가 참여해서 푸드 아티스트, 세계 여행가, 문화재 복원가, 크리에이터, 드론 조종사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 체험해 보고 직업에 대한 인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문화재 복원가와 드론 조종사에 흥미를 보여 매우 즐거운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실시된 양육자 프로그램 힐링 클래스에서는 평소의 육아에 지친 저에게 많은 힐링이 되었고, 특히 가을꽃 캐리어를 만들면서 캐리어 속 꽃다발을 보면서 매우 즐겁고 향기로운 꽃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국이 아니지만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위로가 되고, 아이도 체험학습을 경험하는 것이 즐겁고 신나 해서 어떻게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다양한 고민이나 걱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부모들보다 언



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로받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이웃 문화가 많이 없어서 저 같은 외국인이 육아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꼈던 육아 방식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프로그램 수업을 듣다 보니 공감대와 친밀감이 많이 형성되어서 아이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신 광주 아이 키움,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첨단 행복주택 공동육아 나눔터 등 정말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이에게 유익한 체험을 제공해 주셔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아이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조동휘

## 3년째 육아휴직 중인 다둥이 아빠



### 우리 부부의 가장 소중한 존재 첫째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다행히도 임신은 잘 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임신 후 6주 만에 유산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아내가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가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아이가 잘 버티지 못하고 유산이 되었다.

아내는 그 후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인지 그렇게 밝던 사람이 공황장애라는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버렸다. 최소한 1년 이상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데 아내는 임신을 위해 약을 3개월 만에 끊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아내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런지 우리 부부에게 첫째가 임신이 되었다. 이러한 기쁨도 잠시 아내의 유산기가 심하여 임신 5주 때부터 출산 때까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아내의 근육이 많이 소실되어 아빠인 내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했다. 나의 육아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첫째를 위해서 나는 경찰서 최초로 남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아내와 나는 아이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며 육아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나는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당시 충남 서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택은 광주광역시에 있었다. 첫째 아이를 내가 전담해서 키웠던 탓에 아이는 나를 엄마로 인식하여 나에게 조금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근하는 데 너무 힘이 들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광주에서 충남까지 왕복 320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는 육아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 일찍 퇴근하여 집에 오면 저녁 7시 정도가 되었다. 1년 넘게 이러한 출퇴근을 반복하였다. 주변 동료들이 나보고 어떻게

게 매일 그렇게 장거리를 출퇴근할 수 있냐며 놀랐다. 나는 솔직히 힘은 많이 들었지만, 집에서 나를 반갑게 반겨주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집으로 가는 퇴근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2년 후 운 좋게 전남 목포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 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 수 있었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왕복 150km, 그렇게 시간은 잘 지나갔다. 그 후 우리는 둘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둘째를 낳으려고 한 큰 이유는 내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감당하여야 한다는 큰 무게와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의논할 수 있는 형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더 큰 힘줄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둘째를 가지려고 했다.

둘째도 한 번에 올 리가 없었다. 4년 동안 노력하고 난임병원도 가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다. 22년 4월에 둘째 남자아이가 우리에게 왔다. 둘째와 첫째의 나이 차이는 4년. 육아를 다 잊어버려 초반에는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첫째를 키워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첫째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키울 수 있었다. 나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하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경력 단절이 벌써 6년 차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큰 결심으로 내가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고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2년 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

### 이건 꿈일 거야! 내가 다둥이 아빠라니!

우리 가정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어서 더 이상 아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첫째, 둘째를 너무 어렵게 갖기도 했고 난임이었기 때문에 셋째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하지 못 한 일이다. 더욱이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이라 주변에서 200점

짜리라며 다들 부러워하였다.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100일이 지난 후 직장에 출근하여 내가 주 양육자가 되어 첫째와 둘째를 양육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 둘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였지만, 막상 해보니 힘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어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둘째를 아빠인 내가 육아휴직을 하여 키우고 있는 터라 나는 복귀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둘째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여 주었고 나와 아내는 그걸 보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 나는 그 순간 '이건 꿈일 거야'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임신 테스트기의 너무도 선명한 두 줄을 보는 순간 나는 좌절하였다. 솔직히 첫째도 내가 육아휴직을 1년을 하여 키웠고 둘째도 육아휴직을 1년 넘게 하여 키워서 이제야 직장에 복귀도 하고 사람(?) 다운 삶을 살겠다 싶었는데 아내가 임신한 것이다. 아내의 임신을 확인한 후부터 셋째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생각에 극한의 스트레스에 휩싸였다. 더욱이 둘째와 셋째가 연년생이라서 나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뭘 해도 신이 나지 않고 우울해졌다.

### 나의 구세주 아이돌봄 선생님

아내가 셋째 임신 8개월 때쯤 나에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신청해서 해보면 좋을 거 같다고 말하였다. 나는 속으로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하면서 속은 썸 치고 한번 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가정에 첫 아이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였다. 인사는 반갑게 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였다. 하지만 아이돌봄 선생님이 둘째를 잘 돌보는 것을 보고 속으로 감

탄하였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아이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을 보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의 육아는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너무 걱정하였던 셋째 육아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잘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나의 육아 동반자 아이돌봄 선생님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1주일 이상 입원해 있을 때도 돌봄 선생님은 나에게 진짜 큰 힘이 되었다. 솔직히 선생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둘째를 잘 돌보아 주고 아이들과 산책하러 나가거나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동행하여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는 돌봄 선생님이 있어 든든하고 행복했다. 이제 돌봄 선생님은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돌봄 선생님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육아

우리 사회는 여자가 육아를 전담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맞벌이가 많은 요즘에도 이러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내들이 아주 힘든 게 사실이다. 남편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집에서 아이까지 독박으로 봐야 한다면 이건 너무 큰 고통이다. 남편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도 이러한 남편 중 한 명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육아 단축 시간을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 키우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공감할 수 있을 거 같다.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와 함께 육아를 시작하게 되어 힘은 들었지만 힘들보다 요즘은 행복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아이가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이 되어 갈수록 힘은 들지만, 그 아이들이 주는 넘치는 행복과 기쁨은 더욱 커졌다.

3달 전에 홀어머니를 보내야 하는 큰 아픔을 겪었다. 외아들이었고 셋째가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된 시기였다. 상주 자리에서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중에도 ‘출산한 지 50일도 안 된 몸으로 아내 혼자 어떻게 세 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세 명의 아이를 재울 수 있을까, 먹일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많았었다. 그때에도 돌봄 선생님과 어머니 아버지처럼 늘 옆에서 힘이 많이 되어주신 장인 장모님께서 삼일동안 아내 옆을 지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주셨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외동아들이라서 힘들어 정말 큰 것 같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혼자 다 준비하고 혼자 결정을 하며 함께 해줄 수 있는 형제라 없기에 아주 벅찰 때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세 명이라서 그래도 슬픔,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겠다고 세 명을 출산한 것이 뿌듯하고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마음이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손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하다. 함께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너무 좋고 감사하다.

•• 남이슬

## 육아공동체와 육아체인지



가족 소개를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예쁜 세 아들이 있습니다. 5살, 16개월 아들 두 명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남편’

### 첫째 아기 육아기에 겪었던 돌봄의 필요성

저는 첫째 출산 직전까지 근무하고 낳았습니다. (다행히 조산기도 없었고 아기도 뱃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덕분) 너무나 예쁜 첫아기였지만 초예민+난이도 레벨 3단계 아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3교대 근무였기에 근무하지 않은 날엔 레벨 3단계 아기를 함께 돌보아 주었습니다. (태어나고 3개월 무렵까지) 그런데 남편도 사람인지라 야간 근무를 가거나 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여 아이가 울어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푹 푹 잤습니다. 그럼 저는 24시간 육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육아에 지친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된 홀로 육아에 지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기를 보며 행복해야 하는데 육아로 인해 서로 관계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찌 됐든 육아의 담당은 나이고 누군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육아가 정말 지옥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아이에게 짜증 내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이 나이 아이라면 이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장난할 수 있지” 좋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에도 그 당시 그러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돌봄은 가족들의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걸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첫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 나의 육아공동체는 남편

저희는 함께하는 육아를 노력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며 육아를 이겨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는 초 예민+고난도 첫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순하게 발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 무렵부터 자기표현을 조금씩 하고 또래와의 사회성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아이가 기특하면서 예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에게 기다림을 주면 아이는 더디지만, 차츰 성장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게 보여서 더 예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가 있는 집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그 당시 약간의 표현 및 2어절 말 만해도 그렇게 기특하지 않을 수 없던 때입니다.



첫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점점 예뻐지는 절정의 시기. 둘째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하여 3년 만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게 현실인가요?

둘째를 가질 무렵에는 남편이 출퇴근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무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둘째 계획 시기를 잘못 잡았던 걸까요? 첫째 때는 임신 기간 산부인과를 함께 늘 방문했는데 둘째 때는 임신 기간 통틀어 딱 2번만 함께 갔습니다. 바쁜 사람 시간 내서 함께 가는 것도 그렇고 제 몸 제가 혼자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었기에 전 혼자 일정 잡아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육아 공동체였던 남편은 일에 치여 저와 함께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도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출산도 회사에서 손이 덜 필요한 때를 맞춰서 낳았습니다. 임신 기간 병원은 혼자 다녀도 병원에 혼자 가서 수술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시간을 빼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이런 현실이러니!

### 처음으로 해본 돌봄 신청

둘째 때는 제가 마음의 여유도 있고 하다 보니 돌봄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 산후도우미 신청을 처음으로 했고 출산 후 집에 오는 날에 맞춰 이모님 도움을 받고 쉴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가 정말 신기한 게 퇴

원하고 집에 2~3일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새벽에 1차례 정도만 깨고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이모님이 오시면 온전히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천국이었습니다. 첫째 아이 등원 준비를 천천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2주를 신청했기에 2주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신반의로 한 것이라 2주만 신청. 처음에 신청한 기간이 지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 돈 지출해서 받아야 하는 단점)

#### 돌봄공동체와 역할 체인지

둘째 아기는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 케어에 많이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급격하게 폭풍 성장이 거듭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6~7개월 무렵부터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하더니 8개월부터 한발 한발 걷고 10개월엔 성큼성큼 걸으며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폭풍 성장을 하는 만큼 남자아이 두 명을 돌보는 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마침 남편 또한 과한 업무량에 시달려 지치기도 한 상황이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 미안해하던 찰나였기에 육아휴직을 권하고 내가 취업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처음으로 직장에서 남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어렵게 성사되었고(남자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게 처음 받아들여지는 곳은 어려운 현실)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직 준비는 하고 취업했습니다. 역할 체인지~!



#### 현재

엄마 바라기였던 첫째는 아빠와 애착이 형성되어 아빠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울 때 “엄마~”가 아닌 “아빠~”를 한답니다. 첫째 때는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둘째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하고 서로 육아휴직을 해봄으로써 육아의 고충도 공유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 임재철 아빠 힘내세요!

결혼 전, 아내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를 낳으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아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나는 당당하게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아내는 약속처럼 1년간 아이를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밖에 없는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을 때,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면서 육아휴직 하는 게 어때?” 아내의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난 하루 종일 쉬면서 등·하원만 챙기면 되잖아?’라는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졌고 전 그렇게 14개월의 아기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어린이집에 갔지만 내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감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의 점심밥을 거부하였고, 낮을 가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자 저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굳은 결심과 달리 아이를 하루 종일 집에서 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아이와 놀았는데 시간은 20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에 있는 장난감을 지루해하였고, 저 또한 같은 공간에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장난감을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백화점 문화센터는 너무 멀었으며 키즈카페에 매일 가는 것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본 지 일주일 만에 K.O.를 외치다가 아내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계시관을 통해 ‘푸른마을공동체센터’라는 장난감도서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2주마다 장난감을 빌릴 수 있었고, 1시간에 천 원이라는 돈으로 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부터 아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해서 잘 뛰지 못했지만 넘어져도 안전한 매트가 있었고 창의적인 미끄럼틀 시설과 소근육 발달에 맞는 장난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오전에 ‘푸른마을공동체’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다시피 놀다 왔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듯 매일 다니다 보니 직원분들과도 친분이 생겼고 광주의 여러 육아 정보도 소식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푸른마을공동체’에서 주 1회 오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월 1회 ‘토요일예술놀이터’라는 국악/클래식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는 매일 오전에 장난감도서관에서 놀고, 주 1회 오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월 1회 ‘토요일예술놀이터’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육아를 전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를 보면 나도 모르게 반가워하는 마음이 들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몸무게에 관한 이야기부터 아이가 아침밥을 먹지 않을 때 무엇을 먹이면 좋을지,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 좋은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힘듦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가 어릴 땐 원래 힘든 법이다, 우리 때는 애를 셋씩 낳아서 키웠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내게 위로가 되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하면서 눈치를 봤다” “아빠가 육아휴직 하는 게 부럽

다” “육아휴직 하면서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게 대단하다”는 등의 말들이 내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저의 육아휴직은 어느덧 9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활동반경이 넓어진 저는 아이를 데리고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아무 때나 찾아가기도 합니다. 가서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어머니 등을 만나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간식을 먹입니다. 근처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놀이터를 가서 마을의 또 다른 아빠를 우연히 만나 신나게 대화하기도 합니다. 어딜 가든 아는 부모님들이 생겼고 다른 아이들의 성장도 함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전담하며 힘이 들 때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정말 소중한 시간임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웠던 나의 아내와 만나게 된 수많은 아이 부모님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 이미지

## 육아가 체질은 아니지만- 부부 육아휴직, 시간제 보육 이용

첫 출산을 한 달 앞뒀을 무렵엔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육아 관련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지식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육아휴직 쓰잖아. 그래도 둘이 같이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어떻게 되지 않겠냐?”는 말은 사실 별 대책 없다는 말과 같게 들렸어요. 그래도 ‘같이’라는 말에 든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불안, 설렘과 행복을 오가며 2022년 10월, 우리는 초보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육아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번 비슷하게, 끝도 없이 일이 쏟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밤낮없이 2시간마다 수유 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깊게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집안일도 해야 했고요. 정신없이 하루가 가더군요. 어떤 날은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서 분유를 계속 먹이다



가 아이가 잔뜩 게워 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기저귀 가는 걸 깜빡해 아  
기 엉덩이에 발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또 힘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즈음 우리 부부는 자주 툭툭거렸  
습니다. 5년 넘는 연애 기간 별다른 싸움 없이 잘 지냈는데 말이죠. ‘누가 잠  
을 더 못 잤느니’, ‘누가 아이를 더 돌봤느니’, ‘그렇게 육아하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 싸우다가, 아이가 잠들면 각자 휴대전화만 보면서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남의 편처럼 자꾸 미웠어요.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역할을 분담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  
의 새벽 수유와 오전 육아를, 남편은 오후 육아와 아이 목욕을 담당했어요.  
집안일은 제가 아이 빨래, 청소하면 남편은 분리수거와 점심, 저녁 식사 준비  
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육아 시간이 아닐 땐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필요로 하면 그게 언제든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다 같이  
나들이도 가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는 동  
안, 다른 양육자는 좀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여유가 생  
기니 육아든 집안일이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  
습니다.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피곤해하면 눈치껏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땐 함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공유하며 공부하기도 했습니  
다. 육아가 힘들고, 처음 겪는 상황이란 건 변함없었지만 둘이 하니 덜 막막

했어요. 서로 기대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이 안정되니 또 그다음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  
부는 책 읽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육아하니 돌만의 시간을 보낼 여  
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아이가 언제 일어났지?”, “분유는 얼마나 먹었  
어?”, “똥은 썼어?”, “내일 먹을거리는 있어?” 정도의 대화가 매일 반복되는  
것도 불만이었어요. 우리의 대화가 날 서 있거나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말이죠.

그래서 ‘시간제 보육’ 홍보 자료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8개월  
 무렵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 고민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모두 집에 있는데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즈음에는 어차피 저희 부부의 놀이만으론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하  
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결국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문  
을 두드렸습니다. 하루 2시간씩 아이를 보내기로 했어요. 아이에게는 매일 2  
시간씩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가고 나서부터 데리러  
갈 때까지 계속 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잘 지내더라고요. 시간제 보육은 시간당 최대 3명의 아이까지만 돌봐주기 때  
문에 저희 아이도 아주 꼼꼼히 돌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아  
이가 무슨 놀이, 활동했는지, 무슨 장난감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자세히 공유해 주셨어요. 덕분에 무척 안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  
편과 저는 책 하나씩 들고 동네 카페 데이트도 가고요. 부족한 잠도 잤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는 선생님을 보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저희가 데리러 가도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놓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니 좀 더 섬세하게 아이의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어 좋아요. 제가, 남편이, 돌봄 선생님이, 그리고 그 외 여러 사람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하루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이면 우리 가족은 네 식구가 된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여유롭나?”, “첫째 키우기도 힘든데 또 둘째를 생각하니, 육아가 체질이나?”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저처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누구나 좀 더 쉽게 다음 행복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가 체질이라기보다, 함께하는 육아의 행복을 체험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이가 주는 큰 사랑과 행복을 생각하며 힘내려 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는 남편과 여러 공공 육아 서비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지요. 홀로 육아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육아 동지들도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우

## 백수 아빠와 간호사 엄마

### 로(분노)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전화가 온다. “퇴근하고 바로 올 거지? 얼른 와.” 회식이 있다는 말에 서운함을 숨기지 않으며 육아로 인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한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아내는 폭풍 잔소리를 쏟아 낸다. 신혼 초 첫째 아이를 키우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산후도우미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시는데 뭐가 그리 힘든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황을 바꿔 내가 육아한다면 애들 넷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 애(슬픔)

아내의 복직과 함께 평온했던 첫째의 육아는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과 함께



폭발 직전이었다. 아내는 업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육아와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회사와 상의하에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다시 평온한 육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다. 둘째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외벌이 가정에서 둘째까지 생기는 우리 부부는 가족회의를 통해 둘째 출산 후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가 취업하기로 했다. 당시에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걸 찾기도 힘들었으며 회사에 말하기도 힘들었다.

육아를 전담하고 집안일과 반찬도 만들어 보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5시만 넘으면 아내에게 바로 집에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일상이었다. 조금만 늦더라도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온전히 집에만 있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으며 내가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

는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나만 힘든 건 아니었다. 아내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모유를 짜내느라 매우 힘들었다.

### 락(즐거움)

한번은 아이 셋이 모두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주간에는 여사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육아 레벨이 상승하였다. 이제 아이가 셋이다.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집 앞에 산책도 혼자 나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 아내는 팀장이 되면서 일도 많아졌고 아이가 셋이니 집안일도 많아졌지만, 전처럼 힘들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주민들을 모두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딸 셋 키우는 아빠로 유명하다.



### 희(기쁨)

아기 띠에 셋째를 메고 회사에 찾아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생소한 제도였지만 회사 측의 배려로 인해 육아 단축근무를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딸 넷을 키우는 아빠로 거듭나게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간에 짧게 근무하는 나를 보고 백수로,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4시면 퇴근하는 엄마를 보고 간호사로 소문이 났다. 10살, 9살, 7살, 3살이 된 딸들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힘들기보다는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고, 현재도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함께 돌봄’이 있었기에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간에 짧게 근무하는 나를 보고 백수로,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4시면 퇴근하는 엄마를 보고 간호사로 소문이 났다. 10살, 9살, 7살, 3살이 된 딸들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힘들기보다는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고, 현재도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함께 돌봄’이 있었기에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 • 김승의 임신 중 허리디스크 터짐 아빠의 육아휴직

개천절날 예정일이었던 아기 임신 중 5개월 때쯤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다.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스승의 날쯤에 허리가 뼈긋한 것 같더니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겠고 한 발짝 떼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에 감각이 없어졌다. 119를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빠르더니 좀 누워있으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여서 출근 중이었던 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다.

처음에는 한방병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고 좀 증상이 나아지더니 단순히 임신 증상 중 하나로 생각하고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때도 한 3~4일간은 계속 누워서 지냈었다.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전기충격기로 왼쪽 다리를 찌르는 듯한 느낌에 방사통과 다리 저림이 잘 때도 심하게 느껴져서 신경외과에 갔고 MRI를 찍어보니 허리디스크가 터져있었다.

단순히 임신 증상인 줄 알았던 나의 무지함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임신 중이라서 스테로이드제인 신경 주사나 약물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고통 그대로를 느끼면서 출산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이었다. 허리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고, 충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팠던 거였구나’ 속 시원한 마음이었다.

임신하면 다들 이렇게 아픈 줄 알고 있었던 나의 무지함... 겪어보지 않았던 처음 경험해 본 임신이기에 서툴렀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배가 점점 앞으로 불러오고 허리는 더 압박이 심해졌고 임신기간 내내 거의 누워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남편이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칼로 다리를 베어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왼쪽 다리에 방사통이 생길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남편에게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내 다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왔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할 것 같다.

초기 3개월간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울고불고 ‘과연 이렇게 태교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기에게 미안하면서 나의 고통에 울기 바빴다. 그래도 가끔 고통이 잦아들 때는 아기에게 미안해서 ‘아기야, 엄마가 아파서 많이 울어서 미안해. 엄마가 아기 나오면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줄게. 사랑한다 아가야’라며 태담을 해주었다.

막달이 되니 그래도 걸어 다닐 만한 정도로 허리 상태가 나아지는 듯했고 ‘과연 자연분만으로 출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통이 오면 허리가 괜찮을까 걱정이라고 하셨다. 인터넷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니 허리디스크인 임신부의 자연분만한 사례가 없진 않았다.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자연분만을 도전해 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저녁으로 매우 족발을 먹고 누워서 자려는데 다리 밑으로 주르륵 뭔가가 흘러내렸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예정일보다 3주나 일찍 신호가 왔다. 출산일까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출산 가방도 싸지도 않았었는데 부랴부랴 필요한 짐만 5분 만에 싸고 저녁 11시 30분에 병원으로 출발했다. 진통은 안 느껴지고 양수만 터졌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고 내진을 해보니 그때부터 신기하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6시간이 흘러 아침 6시 17분 3.06kg의 건강한 남아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허리가 걱정되었는데 진통이 오니 허리의 아픔이 잊힐 만큼의 고통이었고 무통 주사의 힘을 빌려 잠시 고통에서 잊히다가 엄청난 고통을 다시 겪으면



서 출산을 할 수 있었다. 황홀한 경험과 영광스러웠던 아기와의 첫 만남을 마치고 2박 3일간의 입원을 하고 난 뒤 몸조리하러 조리원에 들어갔다. 출산의 고통에 아주 잠시 잊혔던 허리디스크의 고통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잠 못 들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해졌고 아기를 안고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매우 안 좋는데 1시간씩 계속 수유를 하는 자세를 하다 보니 허리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되었다. 24시간 안에 3시간씩 8번 수유를 해야하는 신생아이다 보니 계속 앉아 있는 자세가 지속되다 보니 나의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고통을 못 견디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 외출이 되지 않았지만, 나의 상태를 설명하니 조리원에서 외출을 허가해 주셨고 신경외과 병원을 내원해서 신경 주사를 맞았다. 모유 수유 증임을 말씀드리니 약물치료는 어렵다고 하셨다. 아이의 이쁜 모습에 반해 계속해서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다리 방사통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약물치료를하기로 결심했고 모유 수유는 3주간만 하고 중단하게 되었다. 약물치료와 신경 주사를 맞고도 바로 허리디스크가 낫는 것이 아니었고 방사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정도여서 육아를 맡아서 할 수 없었고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빠의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아빠와 산후도우미분의 도움으로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임신과 출산은 정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디스크가 이렇게 출산 후에도 육아까지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행히 아빠는 육아휴직을 계속 쓸 수 있어서 엄마의 몸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육아를 함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분유 먹이기, 트림시키기,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 갈기, 똥 싸면 씻겨주기, 젖병 씻기,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새벽 수유해 주기, 방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밥하기, 빨래하기 등등 육아의 일들을 적으면 끝도 없지만 이 모든 걸 아빠가 전담으로 해주니 엄마는 너무 행복하게 몸조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2개월이 조금 넘은 아기와 함께하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고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허리디스크가 완전히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 약을 1달간 이상 먹으니 다리 방사통의 80%는 줄어들었고 본격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는 울지 않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고 있다.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대여하면서 아이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아기 체육관, 공 등등을 대여하여 2주마다 반납하면서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니 아이도 좋고 엄마, 아빠도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혼자였으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육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앞으로도 무슨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함께라면 아이를 잘 돌보면서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생긴다.

“아기야, 엄마랑 아빠가 많이 사랑해줄게.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 ● 김진희 햇살로 자란 우리

첫째를 임신했을 때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에 가입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자 하는 가치가 마음에 들었다.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회사 생활도 서울 생활도 접고 남편이 사는 광주로 내려와 문흥동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첫째를 키우면서는 고립무원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또래보다 한참 늦은 30대 중반에야 결혼했고 대학교 시절의 친분만 남아있는 광주에 함께 할 육아 동지는 없었다. 같은 라인에 아이 키우는 집 몇몇은 서로를 탐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겨우 아이의 돌이 가까워서야 친해졌다. 함께 산책하다 만난 동네의 또래 육아맘들과도 친해져서 한결 외로움을 덜었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아쉽기도 했다.

〈햇살로 자라는 아이들(이하 햇살아이)〉은 첫째가 두 돌 안 되었을 때 만들어진 한 살림 광주 북구 매장의 육아 소모임이다. 임신했을 때 읽었던 책의 저



자처럼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엄마들과 함께 육아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문자를 받았을 땐 어찌나 설레던지. 한살림이라는 공통 분모는 컸다. 결혼 전 TV에서 봤던 공동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어느 순간 로망이 되어있었는데 그 느낌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모유를 먹는 아기들 속에서 혼자 이유식을 먹고, 기어다니거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 속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는 뭔가 어울리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갑자기 일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육아 모임이 이렇게 유아무야됐다.

둘째를 낳기 전 한살림 식생활강 좌를 들으러 갔다가 그녀들과 마주쳤다. 둘째 백일이 지난 즈음, 햇살아이 2기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이 그들에게서 왔다. 1기 아이들은 이제 바깥 놀이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함께할 아이들은 아직 배 속에 있거나 백일도 안되어 노는 환경이 다를 거라 2기를 만들 비

숫한 또래의 엄마들과 예비모임을 갖자는 것이다. 그렇게 예비모임을 갖고 1기와는 또 다른 지향의 2기가 탄생했다.

발도르프 교육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한살림 광주의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기에 비해 우리는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문흥동에서 택시를 타고 예비모임을 다녔던 나는 매장이 있고, 대부분의 햇살 엄마들이 사는 일곡동으로 이사했다.

처음 다섯 집 정도로 시작했던 예비 모임의 인원에서 이제는 열 명이 넘는 엄마들이 알음알음 찾아오고 함께 했다. 먹거리도 생활의 지향도 닮은 데가 많은 친해지는 게 어렵지 않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서울의 성미산 공동체처럼, 광산구의 ‘햇살가득어깨동무어린이집’처럼 지속 가능한 육아공동체를 만들 꿈에 부풀기도 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초등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데 힘쓴 여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이도 있어서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막상 시도하려고 보니 정부가 인가하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각자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부분도 만만치가 않았다. 우선은 제 코가 석자였다. 2주에 한 번 하는 모임에도 아이가 열이 올라, 다른 아이들에게 감기가 옮을까 염려되어 나오지 못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주먹과 발이 먼저 나가는 아이가 행여 다른 아이들을 때릴까 봐 못 나오는 엄마, 예전의 나처럼 갑자기 일을 하게 돼서 못 나오는 엄마 등 변수가 많았다. 모임을 지속해서 함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내일의 일을 진행할 시간은 물론 힘도 인력도 없었다.

원대한 꿈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모임은 계속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함께 돌상에 오를 음식을 해와서 아이들이 돌을 맞이하면 돌잔치를 했다. 돌잡이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가 손에 움켜쥔 미래를 함께 축복했다. 돌잔치 날이면 1기 엄마들도 꽃과 음식을 들고 와 축하해주고 한살림에서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다.

더 나은 사회,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마음이 담긴 세월호 천일 순례에 유아차를 끌고 가기도 했고, 육아맘들을 위해 요리 강좌를 따로 진행해 주는 등 한살림 생협이 소모임이기에 가능했던 혜택도 누렸다. 엄마의 이유식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는 요리를 잘하는 다른 엄마의 이유식을 나눔하고 조리법도 공유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먹일 백김치를 함께 담근 적도 있다.

방학이 되면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곡에 가거나, 어린이문화전당에서 함께 놀거나 동네 분수대나 유아 풀을 만든 집에서 함께 놀았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 오고 놀거리를 마련해 아이들도 엄마들도 즐겁게 지냈고 계절이 바뀔 때면 아이들 옷이나 신발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결혼 전 TV에서 봤던 공동육아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체계적인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상시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은 것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욕심이 컸던 것 같다. 내가 첫째를 키울 때 느꼈던 고립무원의 외로움이 육아 동지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치유가 되었다. 가장 치열했던 두 돌 이전까지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느라 바빠 육아 품앗이를 할 엄두도 못 냈지만, 아픈 아이와 고생하는 엄마를 응원했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엄마의 노고를 잘 알기에 아이의 생일이면 아이에게는 축복을  
엄마에게는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잊지 않고 전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끼리의 관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빼놓지 않았던 많은  
시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고 육아 상담이나 가정 상담의 정보를 공  
유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육아 모임이 1년을 넘겼을 때 나는 암 환자가 되었  
고 엄마들의 응원 속에 수술과 항암, 요양의 시간을 보냈다.

나의 둘째는 또래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기색이라고는 없는 엄마  
곁팍지였다. 다른 엄마들에게 웃어주는 것도 인색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  
만 필요했고 또래 친구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모임의 일원이  
있고 '이꿈이'로 계속 활동했다. 바깥에서 놀아야만 하는 첫째와 엄마와 집에  
서 노는 게 제일 좋은 둘째 때문에 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힘들  
어할 때 가까이 사는 두 여인이 구원의 손길을 보냈다.

장마철 어느 오후 이제는 함께 노는 맛을 알게 된 둘째까지 합류해서 키보  
드를 타고 맨다리로 뛰면서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며 놀았던 아이들의 반짝  
임, 각자 싸 온 간식을 나누는 따뜻한 순간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  
다. 셋째를 낳고 박사학위 준비를 하느라 힘든데 이사하고 얼마 안 되어 발까  
지 다쳐 삼중고를 겪는 여인을 위해 복구의 끝자락 일곡동에 사는 사람들이  
서구 금호동까지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응원의 마음을 안겨 주고 온 일, 한  
살림 소식지에 실린 우리의 인터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렸던 연대의 깊이  
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집이 전소되어 망연자실한 왕언니를 위해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요

청해 엄청난 양의 옷과 생필품이 모았던 일은 이례적이지만 지극히 한살림  
적이기도 했다. 망연자실한 마음, 그럼에도 계속 회사에 나가 업무를 해야 하  
는 언니를 대신해 우리는 물품을 정리하고 임시로 거처할 집을 청소하고 음  
식을 나누었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는 도움받지 못했다 아쉬워하는 이도 있  
었지만, 그 시기에는 우리 역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다른 어려움  
을 겪게 된 육아 동지의 일이기에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우리는 그녀를 이해  
시켰다.

아이들이 각자 어린이집에 갈 무렵, 늦게서야 합류한 엄마와 아가들과 함  
께 우리는 엄마의 몸과 지구를 털 고생시키는 활동으로 활동의 방향성을 바  
꾸었고 그 활동도 그 이듬해인 2019년 가을 마무리됐다. 햇살아이 3기 모집  
은 지지부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갈 엄마들이 나타나 주지 않았다. 이  
듬해는 사회로 복귀할 인원들이 많아져서 모임을 계속하기도 어려웠고 모임  
을 끌어 나갈 사람도 마땅찮았다. 가치 있고 지속되어야 할 것 같은 모임이 왜  
중단되었는지 그전에는 잘 몰랐다. 그 모임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과 함  
께 한 그 한때로도 충분하다는 걸 겪어보니 알겠다.

우리는 이제 단톡방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가끔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  
면서 현재를 이야기한다. 치열하게 함께 하던 시기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연  
대는 끝나지 않았다. 아이도 우리도 함께 햇살 속에서 자랐고 자라 갈 것이다.

● 임해정

## 우리 가정보다 양육자 많은 집 나와보라 그래!

안녕하세요. 6살, 4살, 2살 세 아이의 엄마! 파워 E 다둥맘입니다. 인사와 함께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한 생명, 한 아이를 훌륭하게 양육하려면 몇 명의 양육자가 필요할까요? 각자 생각하시는 정답이 몇 명이든지 단언컨대, 광주광역시를 통틀어 우리 집보다 양육자가 많은 집은 없으리라 자부합니다. 무려, 12명의 양육자! 믿어지시나요? 맛벌이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스케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12명의 양육자와 함께하는 파란만장 세 아이 육아 스토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12명의 양육자가 과연 누구이신지 잘 살펴보세요!

인구 절벽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자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고민은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한 아이를 위한 전담 양



육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한 아이도 아닌 세 아이가 차례로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귀한 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접할 때는 첫 아이가 4개월째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명이던 아이는 세 명이 되었고 현재는 세 분의 돌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엄마들과 아이 육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돌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돌봄 선생님이 아이 양육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분의 돌봄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부부는 참 좋습니다. 돌봄 선생님 세 분의 성향이 모두 다르신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각각의 성향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규율에 엄격하신 선생님, 아이들이 차분하게 정

돈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셔서 포용력이 넓은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선생님께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아이들과 함께해 주시면서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그 장점들을 흡수하고 또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언제 오시는 날인지 먼저 알고, “오늘은 ○○선생님 오시는 날이지?”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참 많이 따라서 날마다 선생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신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 일을 하고, 잘 놀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두 딸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 유치원 담임선생님과 둘째 아이 어린이집의 담임선생님 두 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크셔서 정기적으로 부모와 소통해 주시고, 조금의 변화라도 보이면 항상 민감하게 감지하셔서 우리 부부에게 알려주시곤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도움 역시 우리 세 아이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는 때때로 양가 부모님이 육아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부부가 일하는 시간이 일반 직장인과 달라 일정하지 않아서 주말에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양가의 부모님들이 육아에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때로는 먼저 연락을 하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양육자가 일반 가정보다 많기에 혹시 부모와의 유대가 불안정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부모이기에 그 누구보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무척이나 큼니다. 그래서 파워 E인 엄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2호점, 그리고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을 다 섭렵하여 세 아이와 함께 짧지만, 알찬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우리 세 아이와 함께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2호점에서 하는 미술, 코딩, 연극, 창의 수학 그리고 푸른길 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 사직도서관, 무등도서관에서 하는 북스타트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 등 세 아이의 연령에 맞게 대면, 비대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시, 구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상한 아빠는 퇴근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아이들과 온몸으로 놀아주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림 놀이, 옛날이야기, 함께 노래 부르기, 하루 일과 나누기 등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복하게 꿈나라로 갈 수 있게 노력해 줍니다. 비록 생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부는 평일, 주말, 낮과 밤 할 것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아파서 입원하였을 때였습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타의 아이들처럼 자주 아프고 또 입원이 빈번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병실로 찾아와 주셔서 아이들을 간호해 주시고, 놀아주시고 또 아이들이 병원에서 행복해하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파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세 아이를 양육하는 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 하나하나가 모두의 힘으로 함께 해결되어 가며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우리 부부가 세 아이를 계획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함께 돌봄’이 있었습니다. 두 딸과 막내아들! 세 천사가 우리에게 와주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이 기분은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이겠죠. 이제 막내가 17개월에 접어들었는데, 한편으로 ‘넷째를 낳아야 할까?’라는 마음마저 듭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함께 돌봄’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저



출산 시대의 우리 다둥이 가정을 보면서 아이와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계획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길 바라며 미숙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자! 세 아이를 키우는 삶,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동해야 한다는 옛말처럼 우리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날 아이들로 인해 지금보다 더 멋진 세상이 펼쳐지시기를 기대합니다 ^^

• 최지원

##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첫 번째 오 마이 갓!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이야!  
두 번째 오 마이 갓! 내가 출산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이야!  
세 번째 오 마이 갓! 내가 둘째를 낳게 될 줄이야!

저는 현재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는 6개월 임신부이자 워킹맘입니다^^ 부부가 근무지가 먼 탓에 첫째 아이 만삭 때까지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배우자의 거주지 따라 광주로 이사 온 지 이제 2년쯤 되어가네요. 이 2년을 돌아보며 결혼, 임신, 출산과 함께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아이 안 낳아봤으면 말을 말어!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은 출산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출산휴가 3개월하고

몸 회복해서 회사 복귀해야죠!”라고 야심 차게 답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 당시는 주변인들의 질문이 출산 후 저의 건강과 회사 복귀 문제에 관해 묻는 건 줄 알았지, 뭐예요. 하지만 그건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 인지 육아, 아이 돌봄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었던거구요.

사실 저는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여지도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회사 복직할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선배들이 제 답변에 정말 백이면 백! “음...3개월 아기 정말 핏덩이인데 그거 말처럼 쉽지 않을 걸? 잘 고민해 봐”라고 조언했어요.

### 큰 결심! 육.아.휴.직

똑같은 조언들이 제 머릿속에 쌓이고 쌓이자 저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유급휴직 1년, 무급휴직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고 저는 우선 유급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 보고 이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며 정말 뼈저리게 느낀바 왜 선배들이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갓 백일이 지난 아기는 너무 작고 가냘프고 힘없는 존재라 나를 꼭 필요로 했고 ‘이 친구를 낳선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과연 출근길 발걸음이 떨어질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부딪혀 보니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에 감사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내부부인데 회사에 남직원 육아휴직 의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남편도 한 달 이상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서 아이가 여행이 가능할 만큼 자란 시점, 남편도 한 달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세 식구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드디어 마주한 아이돌봄서비스

육아를 하다 보니 왜 이리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게 또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중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공석이 생겨 제 예상보다 약 4개월 정도 빠르게 복직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직 육아휴직이 끝날 시점이 아니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던 찰나 복직을 빠르게 결정을 해야 했고 저와 남편은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10개월 남짓 되던 시점이라 어린이집 입소와 적응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문제는 제가 출퇴근이 왕복 4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 아침

7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고 남편은 저보다 더 빠른 시간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등원 시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7시 전부터 등원 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긴 쉽지 않았을 뿐 설령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하더라도 잠도 깨지 않은 아이를 밥도 먹이지 못하고 새벽부터 내던지듯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가 출근하는 7시부터 아이 등원 시간인 9시까지 2시간 동안 식사, 놀이, 돌봄, 등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고민 없이 바로 신청했지만 과연 돌봄 선생님이 바로 매칭이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봄 선생님 매칭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복직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저희 부부 근무 요일, 시간 조건에 맞는 돌봄 선생님을 예상보다 빠르게 매칭을 해주셨고 약 2~3일 정도 돌봄 선생님과 아이 인수인계 시간을 가지며 빠르게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또 다른 걱정과 고민, 하지만 사치였던 고민

사실 아직 자기표현도 못하는 아이를 가족도 아닌 남의 손에 맡긴다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간혹 뉴스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식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더욱 큰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돌봄 선생님이 벨 누르는 소리에 돌고래 소리를 내며 돌봄 선생님을 반기는 아이 모습에 내 걱정과 고민은 사치였구나 싶었습니다. 돌봄 선생님을 마주하는 아이의 표정과 행동만 보아도 돌봄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는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저 역시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

고 매일 매시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맞벌이인 저희는 육아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애정을 갖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테고 아마 그게 엄마인 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를 몸소 체감하게 되었겠지요. 이렇게 든든한 여러 육아 제도 덕에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도 걱정과 두려움 보다는 기쁨과 설렘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부부 둘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현재보다 더욱 나은 육아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저희 아이가 돌봄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길고 힘든 출근길에 지쳐 사무실 책상에 털썩 앉을 즈음 돌봄 선생님이 매번 보내주시는 아이 사진에 힘이 납니다^^

